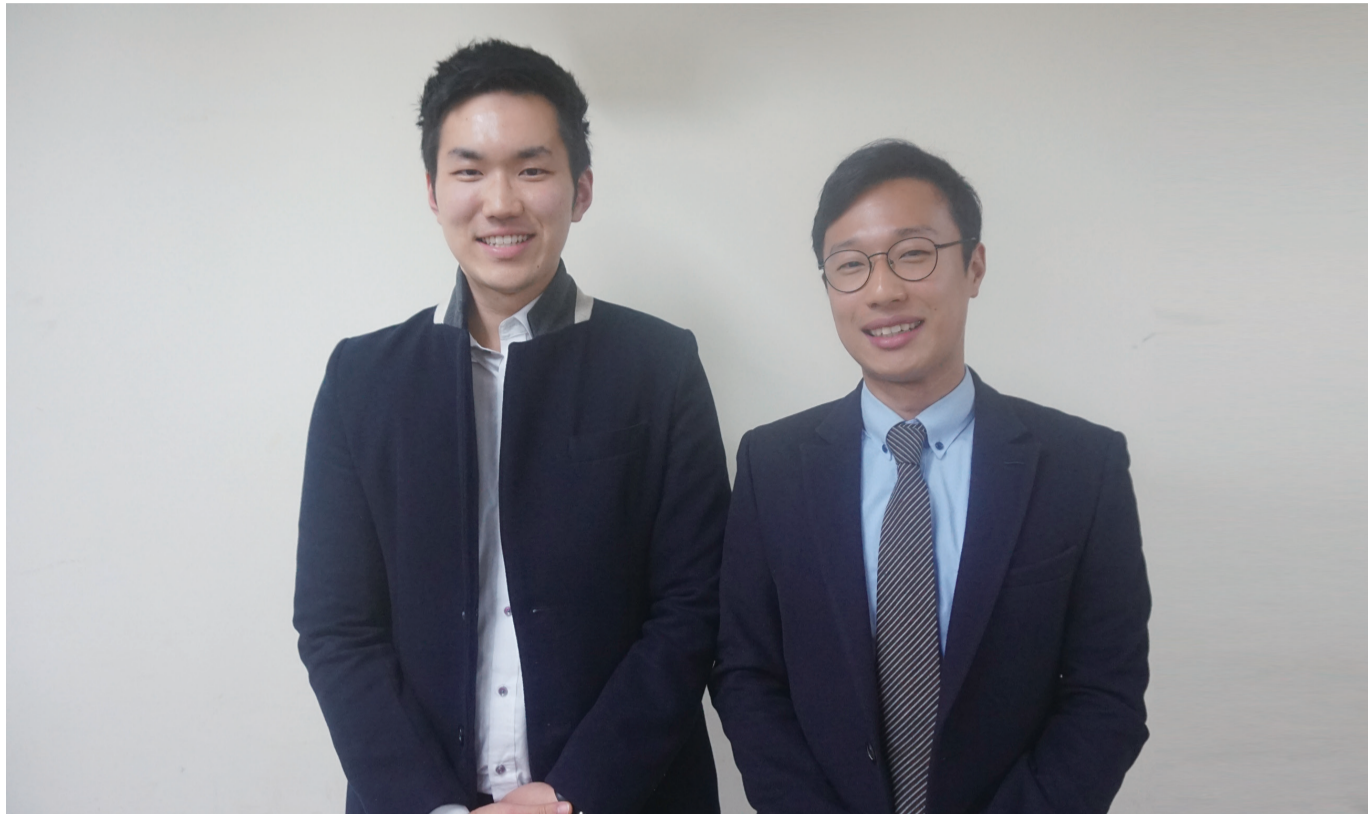




# 외대학보



2 단과대학 총학생회 당선자 알림      4.5.6.7.8 학술대전 수상작      12 평범한 학생에서 미스코리아가 되기까지



**2015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메아리를 소개합니다** 글로벌배움터 제 36대 총학생회에 기호 1번 메아리가 당선됐다. 지난 달 25일부터 27일까지 투표 기간을 거쳐 27일 공학관에서 개표가 이뤄졌다. 메아리는 총 222명 학생들의 표를 받아 53%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됐다. 총학생회장은 우성원(동번역·중국어 12) 군, 부총학생회장은 김대홍(국제지역·인도학 11) 군이다.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우 군은 "선본 이름이 메아리인 만큼 학우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총학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개표를 지켜본 박정민(국제지역·아프리카 12) 군은 "무효표가 너무 많고 투표율이 저조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해 총학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당선된 총학이 공약도 잘 이행해주고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 창의 융·복합 연구의 초석을 다진다 5년간 720억 규모 기상사업단 유치



▲우리학교와 협력하게 될 기상기술개발원은 2세기 차세대 기상·기후·지진 연구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이다. 이번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20억 원을 우리학교에 지원하게 된다.

지난 11월 19일 우리학교가 기상기술개발원(이하 CATER)에서 실시한 '차세대 도시·농림융합 기상사업단' 유치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CATER은 기상, 기후, 지진 기술 개발사업의 추진 기반 확립 및 새로운 연구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기상청이 2005년에 설립한 기관이다. 한편 우리학교는 국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고 득점 기관으로 선정되며 합의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우리학교는 창의 융·복합 연구의 진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 사업단 유치로 우리학교는 기상기술개발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7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현재 37명인 사업단 연구 인력이 60명으로 증원되며 외부 연구도 기존의 1.7배로 증가한다. 이는 대학 외부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이므로 우리학교의 순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우리학교는 사업단을 위해 서울배움터 교수학습개발원에 330㎡, 글로벌배움터 백년관에 990㎡의 연구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유치한 사업단은 최근 5년간의 사업단 유치 실적과 비교해 볼 때 규모와 예산이 크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예산을 수주했던 '인문한국(Humanity Korea)' 사업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총 219억 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에 비해 '차세대 도시·농림융합 기상사업단'은 절반의 기간 동안 3배가 넘는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단과 사업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유치는 글로벌배움터에 조성 예정인 창의 융·복합 연구단지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 유치를 통해 기존의 연구비 수주기관을 다양화하고, 기상 사업과 연관된 여러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대해 최영수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차세대 도시·농림융합 기상사업단의 유치는 우리학교의 창의 융·복합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상 기술을 전략언어군에 통·번역을 통해 알려 국가 및 학교를 홍보할 수 있다"고 전망을 밝혔다.

이진형 기자 89mattec@hufs.ac.kr

## 우리 글 어때요? 제 2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시상식 열려

이번 달 1일 서울배움터 사이버관 사이버대 총장실에서 제 2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는 김인철 총장과 오종진 외대학보 주간교수 등이 참석했다. 1등은 '천국으로 모십니다'라는 소설을 쓴 김형원(교육·국어 12) 양이 수상했다. 이어 2등은 소설 '한기동 이야기'의 이인희(서양어·독일어 10) 양이, 3등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국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기고한 전다록(중국·중국 10) 양이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외대학보 학술대전은 기존에 있던 외대 문학상과 외대 논문상을 통합시킨 공모전이다. 이번 학술대전 시상식에서는 지난해와 이번 해에 공모한 소설 및 논문을 함께 평가해 시상했다.

김형원 양은 "글을 기고할 수 있는 대회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수상까지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인희 양은 "지금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작가의 꿈을 꾸며 글을 써왔다"며 "언젠가는 꿈을 이뤄 작가로서 이 상을 추억하게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전다록 양은 "중국은 가까운 나라이지만 워낙 넓어 그동안 속내를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며 "이번 논문을 통해 중국 사회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학교에서 중국지역학을 공부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을 덧붙였다. 시상 후 김인철 총장은 "모두들 자기 일이 바쁠 텐데 시간을 내서 소설과 논문을 투고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며 "자신의 학업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해나가는 세 수상자들이 학교를 풍요롭게 한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 4, 5, 6, 7, 8면에 계속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칙 개정 완료...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지난 11월 24일 서울배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칙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총학생회칙 개정 작업이 사실상 모두 끝나고 마무리작업만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칙은 기존 94개 조 16쪽에서 206개 조 43쪽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전체학생대표자회의진행세칙 단 2개뿐이었던 부속 세칙·규칙도 △선거시행세칙 △재정·감사운영세칙 △회의진행세칙 △공간운영세칙 △사무처리규칙·서식집 등 총 7개가 됐다.

유경원(경영·경영 12) 학생회칙개정위원장은 이번 개정 작업에 대해 "체계화된 구조를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게끔 회칙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는 학생회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범(국제 11)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또한 "선거 진행은 투표함을 옮기는 방법까지 정해졌고 재

정 같은 경우 사용처나 징계 수위 등을 하나 하나 명시했다"며 "선거와 재정의 경우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중요한 회칙들을 세분화해 매끄러운 학생 사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총학생회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록물관리세칙이다. 이 세칙이 시행되면 총학생회는 단과대학과 총학생회의 온·오프라인 자료들을 모두 보관하게 된다. 이 자료들은 역사관에도 보관될 예정이다. 김범 총학생회장은 "그간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전대 대표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무조건 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했다"고 제정 배경을 전했다. 유경원 위원장 또한 "이 세칙에는 기록물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없앨 경우 정회원을 최대 제적까지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있다"며 "정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인데, 즉 학생회의 기록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할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도 총학생회칙에는 없으나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항들이 회칙으로 정해져 현실을 반영하게 됐다. 학생대표자 회의체 등의 의무나 권한 또한 명시하는 등 학생사회 운영이 더욱 체계화될 전망이다.

김범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해 9월부터 10회 이상 전학대회를 개최했고 그 중 한 차례는 밤을 새기까지 했는데 매번 참석해 의견을 밝혀주시는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며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더욱 단단한 학생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경원 위원장 또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학생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행복했다"며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시행할 후배들도 회칙을 읽어보며 총학생회의 미래를 고민해줬으면,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사회가 발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총학생회칙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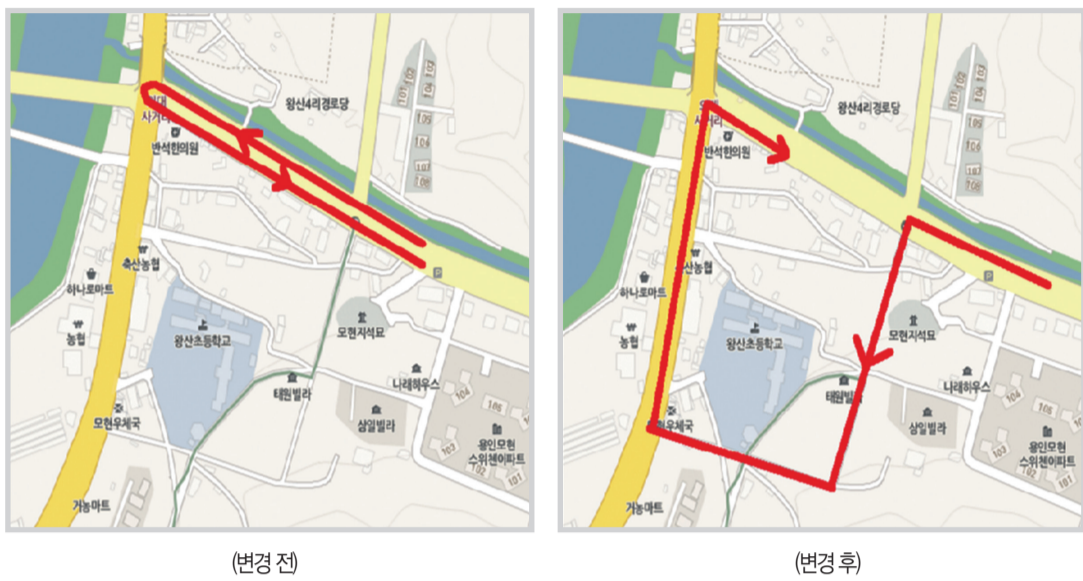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칙

제·개정 전	제·개정 후
제1장 총칙	전문
제2장 회원 및 그 권리와 의무	제1장 총칙
제3장 총학생회	제2장 회원 및 그 권리와 의무
제4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3장 의사결정기구
제5장 동아리연합회	제4장 학생총투표
제6장 언론협의회	제5장 총학생회장단
제6-1장 학생복지위원회	제6장 집행기구
제6-2장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제7장 독립기구
제7장 졸업준비위원회	제8장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제8장 회칙개정	제9장 학생자치연론
	제10장 재정
	제11장 선거
	제12장 윤리
	제13장 회칙개정
	부칙
94개 조, 16쪽	206개 조, 43쪽

▲ 총학생회칙 제·개정 전과 후의 비교 표다. 개정된 총학생회칙 및 세칙 전문은 10일 서울배움터 재학생들의 메일로 보내질 예정이다.

# 산 넘어 산 글로벌배움터 교내순환버스 노선 변경



▲ 오른쪽은 변경 후 뺑차 노선이다. 변경된 뺑차 노선은 거리가 더 멀어지고, 길이 까다로워졌다.

지난 달 28일부터 글로벌배움터 내 교내순환버스(이하 뺑차)의 하행노선이 변경됐다. 이전에 뺑차는 하행노선 종점인 외대사거리에서 불법유턴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단속 강화와 불법유턴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모현사거리, 신안아파트 앞, 왕산주유소 앞에서 버스유턴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할인마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모현우체국으로 우회하는 경로로 바뀌었다. 하지만 새 노선은 사실상 버스가 다니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할인마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2차선 도로에 들어서게 된다. 이 도로는 양옆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버스 한 대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다. 뿐만 아니라 변경노선은 주민들의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버스가 우회하는 길가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버스가 운행 도중에 좁은 길을 지나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기라도 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모현파출소 측은 “최근 많은 학부모들이 버스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도로는 경사가 심해 바닥이 미끄러울 시 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김승현(경상·국제금융 14) 양은 “이런 오르막에서 겨울철처럼 눈이 많이 와 길이 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성원(통번역·중국어 12) 글로벌배움터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자주 지나던 도로라서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며 “이전처럼 외대사거리에서 유턴하거나 모현우체국 쪽으로 우회하지 않고 외대사거리에서 더 직진해 합법적으로 유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 성적평가 원칙 재논의 후 결국 2015년 1학기부터 변경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평가 원칙이 변경된다. 우리학교는 지난 해 SBS 8시 뉴스를 통해 졸업생의 75.8%가 A학점을 받는 등 ‘학점 인플레이션’을 지적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변경된 사항들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과 학생대표자의 논의 끝에 한 학기 유보됐다. 변경 안에서 수정되는 사항은 절대평가 인원수와 재수강생 성적평가 학점상한제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수강생이 20명 미만인 강의는 절대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또 재수강생은 성적평가에서 학점상한이 없어 A+학점 취득이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수강생 15명 미만의 강좌만 절대평가가 가능하고, 재수강생은 A0학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번 성적평가 변경에 관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성원(통번역·중국어

12) 군은 “우리학교는 외국어 수업의 특성상 절대평가를 하는 강의가 많다. 하지만 이번 변경 안은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가 외부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결정한 사항 같다”며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많을까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박진현(경상·경제 12) 양은 “보통 일년의 유예기간을 준 후에 성적을 변경하는데 이번 사안은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자 서울배움터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은 “학점 인플레이션을 하는 등 학교 평판도가 많이 실추됐기 때문에 성적평가 원칙변경이 불가피했다”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받는 성적이지만 사회적인 시각은 부정적이라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 이번 겨울에는 따뜻한 국제학사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24시간 난방 신청제 실시

11월 24일부터 서울배움터 국제학사에서 24시간 난방 신청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난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신청제가 도입되면서 과방과 동아리방 등 국제학사의 모든 자치공간을 대상으로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만큼 추가로 난방이 가능하게끔 바뀌었다. 이번 난방 신청제는 개별 난방이 가능한 국제학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인문과학관, 사회과학관, 교수학습개발원 등 다른 건물에도 학생 자치공간이 있지만 이 건물들은 중앙난방시스템이어서 개별 난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제를 실시하기 어려워 국제학사만을 대상으로 신청제가 실시된다. 난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치공간은 이용할 날 짜 전 주 월요일에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일주일 단위로 평일에는 최대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시간이 너무 길면 취소될 수 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출마 당시 이미 24시간 난방·난방과 난·난방 신청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시했던 적정 온도 유지 및 에너지 절약 관련 공약 또한 학교 측에서 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김범(국제 11)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시간에 난방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24시간 난방이 가능한 만큼, 화재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고 에너지 소모가 큰 전열기구 사용은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양 배움터 단과대학생대표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 배움터〉	
단과대학	성명
동양어대학	김우리(동양어·태국어 13)
영어대학	박민기(영어·영문 10)
LED대학	도진현(LED 13)
〈글로벌 배움터〉	
단과대학	성명
인문대학	고창빈(인문·사학 11)
경상대학	이윤형(경상·국제경영 10)
통번역대학	최지환(통번역·일본어 11)
국제지역대학	김도현(국제지역·아프리카 13)
동유럽대학	임형조(동유럽·체코어 09)
자연과학대학	추연우(자연·환경 08)
공과대학	정운용(공과·산업경영 12)

지난 달 선거를 통해 양 배움터 단과대학생대표들이 선출됐다. 서울배움터는 9개의 단과대학에서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무산됐고, 동양어대학, 영어대학, LD학부에서만 선거가 치러졌다. 반면 글로벌배움터는 모든 단과대학에서 선거가 이뤄졌으며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통번역대학은 경선이었다. 특히 공과대학은 두 후보 간 표차가 37표밖에 나지 않는 치열한 선거였다. 서울배움터에서 다음 학기부터 학교를 이끌어 나갈 새 대표자들은 김우리(동양어·태국어 13) 동양어대학생회장, 박민기(영어·영문 10) 영어대학생회장, 도진현(LED 13) LED학부학생회장이다. 이에 김재훈(동양어·마인어 12) 군은 “선거가 무산된 단과대들도 많은데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표자가 선출돼 다행이다”며 “하지만 뚜렷한 공약이 없고 선거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는 등 후보자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배움터에서는 고창빈(인문·사학 11) 인문대학생회장, 이윤형(경상·국제경영 10) 경상대학생회장, 최지환(통번역·일본어 11) 통번역대학생회장, 김도현(국제지역·아프리카 13) 국제지역대학생회장, 임형조(동유럽·체코어 09) 동유럽대학생회장, 추연우(자연·환경 08) 자연과학대학생회장, 정운용(공과·산업경영 12) 공과대학생회장이 당선됐다. 치열한 경선 끝에 당선된 최지환(통번역·일본어 11) 통번역대학생회장은 “지난 한 학기 통번역대학 비대위장을 맡고 이번에 통번역대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2000명의 대표가 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다음 해에도 통대를 위해 발로 뛰는 최지환이 되겠다!”며 감사인사와 함께 자신의 포부를 전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 토론을 만나면 인문학이 보인다 외대 토론왕은 누구?



▲ 글로벌배움터 공학관에서 브레인팀(왼쪽)과 블랙스완팀(오른쪽)이 열린 토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 글로벌배움터 공학관에서 제 7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배 인문학 토론대회가 결승전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논리적·비판적 사고 및 토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인문대학에서 주최하는 토론대회다. 이번 대회는 9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시작으로 양 배움터에서 5주 동안 대회가 진행됐다. 지난 달 28일 서울배움터 사이버관에서 준결승을 진행한 뒤 글로벌배움터에서 결승전이 열렸다. 결승전을 진행하기 앞서 인문학 강연이 열리기도 했다. 이 날 강연은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김용규 작가가 초청됐다. 준결승을 거쳐 김우림(경상·경제 10) 군, 최병욱(통번역·독일어 09) 군, 이예슬(국제·한국 14) 양으로 구성된 ‘블랙스완’ 팀과 한범수(사회·자전 10) 군, 박서영(동양어·인도어 12) 양, 민정원(동양어·이란어 13) 양으로 이뤄진 ‘브레인’ 팀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의 토론 주제는 ‘공익을 위

한 정치적 거짓말은 옳은가’였다. ‘블랙스완’ 팀은 금모으기 운동 등을 예로 들며 ‘공익을 위한 정치적 거짓말은 옳다’라는 찬성 측의 입장을 펼쳤고, ‘브레인’ 팀은 ‘정치적 거짓말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대 측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해나갔다. 한 시간의 토론 끝에 우승은 ‘블랙스완’ 팀이 차지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원평 철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블랙스완 팀의 준비과정과 철학이 철저했다”면서 “주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근거에 대해 많이 공부했음을 느꼈다”고 평했다. 우승을 차지한 ‘블랙스완’ 팀은 상장과 80만원의 상금을 수여 받았고 준우승을 차지한 ‘브레인’ 팀은 상장과 함께 3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우승팀의 최병욱 군은 “교내 해외 봉사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출전했는데 이런 결과를 얻어 매우 기쁘다”면서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 시리아 난민은 이제 굶어야 하는가?



김윤정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이번 달 1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긴급 고갈로 인해 시리아 난민 170만 명에 대한 식량 구매권(바우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리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세력과 정부군과의 갈등으로 2011년 3월 이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약 9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들 중 250만 명의 난민은 주변국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터키, 이집트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650만 명은 집을 떠나 시리아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특히 시리아 주변 지역은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들어, 내전으로 인해 황폐화된 이 지역의 올해 곡물 생산량은 170만에서 2백만 톤 정도로 최저치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밀의 수요가 510만 톤이었던 것에 비해 한참 미달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곡물가격 상승 및 거시경제의 악화는 이 지역의 식량 수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WFP는 세계은행(World Bank Groups)이나 국제통화기금(IMF)와는 달리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의 독립적인 출처가 없다. 그래서 WFP가 수행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사업과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금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부는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되며, 그 중에서도 각 국가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몫이 가장 크다. 국가들은 WFP에 대한 회비 납부란 것도 없으며, UN에서도 각 국가에게 WFP에 대한 기부금 액수나 비율을 산정해주지 않는다. 말 그대로 전적으로 자발적인 기부금 형식을 통해 사업비용을 취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약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WFP의 인도주의 개발 프로젝트에 비용을 부담한다.

WFP는 시리아 내전 2011년 이후 시리아 국내에 있는 피난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로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왔

다. 그러나 2014년에 갑자기 서아프리카 지역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WFP에서는 긴급히 에볼라 바이러스 이슈로 자금을 투입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WFP 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식량 지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채 사흘도 되지 않아 12월 4일부터 다시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긴급 조성용 목표로 72시간 모금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어서린 커즌(Ertharin Cousin) WFP 사무총장은 1달러의 기부만으로도 시리아 난민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호소했다.

현재 WFP 기금으로는 12월의 추위와 배고픔을 감당할 수 없다. 특히나 시리아와 그 주변지역의 겨울은 겨울폭풍이 매섭게 몰아치는 지역이다. 텐트의 벽에 덧댄 얇은 비닐과 포대자루, 종이박스만으로 몰아치는 한겨울 눈보라를 막아내기에는 난민캠프는 무척이나 위태롭다. 12월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6천 4백만 달러가 당장 필요하다. “당신에게는 그냥 1달러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선”이며, 이 돈으로 시리아 난민을 위한 식량 구매 프로그램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72시간 모금 운동은 WFP 공식 홈페이지(wfp.org/forsyrianrefugees)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총 목표량을 채우려면 6천4백만 명이 1달러씩 기부를 하면 된다. 그러나 모금 마지막 날인 12월 6일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 고작 1만 명 정도만 기부를 했을 뿐이다. 본래 WFP측에서 12월의 겨울을 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금액이 기부자들의 힘으로 모아지길 희망했으나, 정작 목표수준의 고작 1/6,400밖에 되지 않는다. 6천 4백 분의 1이다. 퍼센트로 따지면 0.015%가 조금 넘는 정도다. 국제사회의 차가움은 올겨울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렇게나 시리도록 차갑게 돌아섰다.

시리아 난민을 위한 모금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WFP의 기금마련은 오로지 기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금운동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지만, WFP는 그래도 꾸준히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긴급 고갈을 이유로 시리아 난민의 식량 보급을 위한 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금 고갈은 비단 WFP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UN에서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깨끗한 물과 위생, 보건, 음식, 긴급 거주지, 난민보호, 교육, 복구 등을 지원하는 기금과 사업으로 굶직한 국제기구들이 투입돼 있다. 인도주의 사업의 조정자 역할에는 유엔인도주의조정업무국(OCHA)이, 아동 보호 관련 사업은 유니세프(UNICEF)가, 식량지원은 WFP외에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맡고 있으며,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과 유엔난민기구(UNHCR)이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시리아 긴급구호기금(ERF), 중앙긴급기금(CERF), 시리아 인도주의적 대응계획(SHARP), 시리아난민을 위한 지역적 대응계획(RRP), 전략대응계획(SRP) 등도 있다. OCHA에 따르면 SRP 사업을 위한 기금은 63억 3천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2014년 10월 28일까지 모여진 기금은 23억 달러로, 각 국가들에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 목표 수치의 36.3%밖에 되지 않는다.

쿠웨이트 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결부시키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위원회, 독일은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리아에 대한 자금 지원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으며, 기부를 약속한 국가들 중 미국, 유럽위원회,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시리아 사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음 번 기부 회의에 참여하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무정부상태. 국가들 중 ‘일탈’을 하는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상위 국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특정 국가가 ‘일탈’을 일삼았을 경우 그 국가의 행위를 규제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질 만큼 무척이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수단으로써, 어떤 조건 조항처럼 이용하게 되면, 만약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생겨도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기이한 결론에도 도달 수도 있다. 인도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인도주의다.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외대인이 만난 세계

### 발칸반도의 눈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발칸반도의 눈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플리트에서 모스타르는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땅에서 직행버스란 없나 보다. 모스타르는 내륙도시인데 해안선을 따라 크게 돌아 여러 곳을 돌아간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5시간만에 도착했다.

모스타르는 작은 도시라 금방 돌아볼 수 있었다. 지난 날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치르면서 겪은 상흔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제법 큰 쇼핑몰이나 랜드마크였을 법한 건물들이 종알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다. 20년이 다 돼가도 지워지지 않은 상처들.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도 겪었을 아픔. 콘크리트 상흔들에서 채 가지지 않은 슬픔이 느껴졌다.

구시가의 한복판에 옛스러운 다리 하나가 있다. 오스만 제국 시절 첫 치고는 상태가 좋다 했더니 1993년 전쟁 당시 폭격으로 무너져 복원한 것이라 한다. 지금은 웨딩사진을 찍는 커플들과 노부부들의 아름다운 배경이 돼주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다리 한 편에 있는 전쟁사진관에 들르니 가슴을 두드리는 사진들이 걸려있었다. 총을 들고 있는 어린 아이들, 고아들과 죽지 않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사진에서 당시의 참상이 똑똑 묻어난다. 짧게 돌아본 모스타르 곳곳에는 “Don't forget 93”이라는 벽보나 기념비들이 많았다. 1993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고맙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모스타르에서 그리 멀지 않다. 수도답게 제법 크고 화려하지만 역시 폐허의 흔적이 남아있다.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에서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많은 보스니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거리 곳곳에는 그들을 기억하고자 비극의 장소에 피를 상징하는 붉은 페인트를 칠해 총탄 자국과 함께 보존하고 있다. 건물 숲 사이의 피비린내에 비틀거리며 언덕으로 발걸음을 돌리면 무수하게 많은 백색묘비들이 늘어서 있다. 잦은 전쟁으로 인한 비극의 흔적. 성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그런 묘비들의 계곡이 너무도 많았다. 누가 가져다 두었는지 채 시들지 않은 꽃들이 그 자리들을 화려하게 빛내고 있다.

사라예보의 구시가에는 특히 모스크가 많은데 오스만 시대의 것이다. 덕분에 무슬림의 비율이 유럽 대륙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까닭에 보스니아 전쟁이 발발했다. 크로아티아계 카톨릭과 세르비아계 정교회 사이에서 보스니아의 무슬림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비셰그라드 다리를 배경으로 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이보 안드리치의 작품 ‘드리나 강의 다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금도 보스니아는 세 개의 종교와 민족이 섞여있어 종전 2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위협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래저래 햇살도 밝고 화창한 날씨였으나 우중충한 도시였다.

나침술(상경·경제 09)

## 5분심포

## 인정척 기사

## 언(言)빌리버블

## 유다송 기사

### 완성의 흔적

시간이 흘러 어느덧 2학기의 끝자락에 섰다. 이번 호가 2014년 2학기 외대학보의 마지막 호다. 또 지금까지 써왔던 5분심포의 마지막 글이다. 끝으로 소개할 곡은 양희은의 ‘꽃병’이다. 처음 이 제목을 보고서 ‘왜 꽃이 아니고 꽃병일까?’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 이유는 ‘그리움’에 있었다.

이 곡의 첫 가사는 ‘생각나 나요’라는 물음이다. 얘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오래전 일이면 먼저 그 일을 기억하는지부터 물어볼까. 어찌됐건 가사를 따라가 보면 옛날에 그대가 흐드러지게 핀 장미를 꽃병에 담아 줬더라. 그리고 후렴에선 꽃이 시든다.

‘꽃은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 게 아스라이 흐려져도’ 이 구절을 보고 제목이 꽃병인 이유를 알았다. 비록 꽃이 졌더라도 꽃병은 남아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빈 꽃병은 한창 피어있던 장미를 생각나게 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적에 받았던 꽃을 기억나게 해주는 건 꽃병이었던



▲ 정미가든 꽃병 빈센트 반고흐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빈 꽃병을 보며 꽃이 졌다는 사실에 슬퍼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원래 꽃은 지게 돼있다. 만약 꽃이 항상 활짝 피었다면 그 예쁜 모습이 일상이 되고 그저 매일 보는 풍경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꽃이 지기 때문에 만개했을 때가 예쁜 것이다. 즉, 꽃이 졌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2014년이 다 말라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젠 한 해를 완성할 때가 다가왔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번 해는 어떤 모양으로 만개했었는가? 그 아름다움이 아쉬워 올 한 해를 끝마치는 것이 달갑지 않은가? 하지만 한 해가 다 시들어 죽어야 아름다움이 완성이 된다. 2014년이 가는 것이 아무리 아쉬워도 잘 가라고 손 한 번 흔들어주자. 다만, 이 아름다웠던 해를 기억하게 할 꽃병 하나는 잘 간직하자. 그동안 감사했다.

### 어쩌면 주위에 있다

최근 필자의 친구가 고백할 것이 있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참을 에둘러서 말했다. 들어보니 그것은 자신이 성 소수자라는 것을 밝히는 커밍아웃이었다. 나와 함께 치마를 입고 여고를 졸업했던 그 친구가 20여년의 고민 끝에 신체적으로도 완벽한 남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친구가 그러한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나왔을지가 느껴졌다. 그 친구의 많은 부분이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들었다. 그러나 항상 내 곁에 있던 그마운 존재라는 것은 여전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존중해줬다.

필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 특히 그들이 받는 차별적 대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항상 그들의 평등은 지켜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좋고 싫고를 따질 수도 없이 이미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 소수자도 마찬가지다.

‘유명한 성 소수자’인 연예인 홍석천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결혼은 불가능한 것으로 믿고 살았지만, 미국 뉴욕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지인이 동성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보며, 어쩌면 자신도 결혼을 꿈꿔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놀랐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자신만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보이는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공감을 얻었다.

그들이 사회의 일부라는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다름을 이해하고, 우리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사회의 공식적 인정이란 모든 면에서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서야한다는 뜻이다. 어쩌면 학교에서 결혼에 대해 가르칠 때 남자와 남자가 입을 맞추는 사진을 쓸 수도, 동성 간의 위생적인 성관계를 가르치는 성교육이 생겨야 할 수도 있다. 또 출생신고에 성별표기란을 자녀가 표기할 수 있게 비워놔야 할 수도 있으며, 남성과 여성뿐 아닌 새로운 성 분류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성을 선택하고,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랑이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을 때 세상은 분명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고 그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기까지도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했다. 없는 척 했던 것을 드러내고, 남들과 다르면 틀리다고 믿는 사회에서 조금 특별한 자신을 밝히는 것은 힘든 일 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씩 물음으로 나오고 있다. 남다른 시련을 겪으며 자신을 찾아가고, 어쩌면 혁명이 될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응원한다.

# 외대학보 제2회 학술대전 심사 총평

오종진 (외대학보사 주간 교수/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우리 대학의 학술과 문화의 부흥기를 꿈꾸며 태동된 「외대문학상」과 「외대학술상」은 그동안 다양한 학자와 문인을 배출해 내며 나름의 소명을 다해왔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글쓰기가 날로 경량화돼 가는 추세 속에서 2005년을 마지막으로 42회까지 진행되어 온 「외대문학상」과 22회까지 이어져 온 「외대학술상」은 중단됐다. 특히 학술상의 경우에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해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어 어떤 변화를 택해야 할 시기가 임박해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2년 외대문학상과 외대학술상의 의미를 통합해, 학문과 문학은 한 뿌리의 나무이니 같은 산에 함께하리라는 위안을 가지고 제1회 학술대전을 개최했다. 이어 이번 해에는 2013년 학내 변화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응모작도 함께 모아 2014년 제 2회 외대학보 학술대전을 진행했다.

### 〈논문〉

논문은 무엇보다도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하는 말과 개념들도 분명해야 한다. 분명하다는 말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그것이 다루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논문의 논지는 그 범위를 좁혀서 자신들이 확실히 이해한 것을 체계적으로 논증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구체적이기는 하되, 그 내용이 상식적 내용에 머물러서는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 어느 논문을 읽을 때 받는 느낌이 신문을 읽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논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논증을 위한 자료로서 신문의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다. 전체 내용이 마치 신문의 보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논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전문가의 논문이 아닐지라도, 아마추어로서 수준에 맞는 자신의 논지를 펼쳐야 하고 자신의 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적절한 인용과 예를 동원하여 논리적인 구성을 갖춘 합리적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결론은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입되게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논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는 부분이다.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어야지 본문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열거한다든지, 문제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논문의 기본적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공모한 논문 중 하나는 사용된 용어와 개념들이 너무 애매하다. 그리고 논자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여, 전혀 학술적 논의가 되지 못했다. 논문에서 쓰는 용어들은 그 개념들이 명료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용어에 새로운 개념을 부가할 때도 역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또 다른 논문은 위에서 말한 대로 논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신문 보도를 통해서 기자가 독자에게 강력히 무엇인가를 호소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전혀 논문의 틀도 갖추지 않았다. 나머지 두 논문은 어설피게 기본 틀을 갖추었고 그 주제도 현실감 있는 것이나, 신문·잡지·기존 논문의 상식적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논문을 다 읽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는 수긍을 이끌어내기보다는, 흔히 들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느낌 이상이 없다.

그리고 문단이 바뀔 때, 첫 줄의 들여쓰기도 하지 않는 논문도 있고, 예를 든 자료의 년도가 잘못된 것도 있었다. 이러한 중에도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국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제 선정·논문의 형식·결론의 제시가 다섯 논문 중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3등으로 결정을 내렸다.

아마추어의 논문일지라도, 자신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쓰는 노력이 담긴 글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매우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글을 바로 쓴다는 것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유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글을 쓰느라 애쓴 다섯 공모자에게 미안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부디 이 결정이 공모자에게나 한국외대의 모든 이에게 긍정적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 〈문학〉

소설 및 수필의 경량화 경향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거시담론의 약화는 미시담론을 풍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론 자체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는 결코 환영할 만한 변화가 아니다. 문학 작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가 예술 작품으로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동감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작가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전 명작처럼 보편적 의미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대와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추구할 필

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문학 작품들에서는 소통을 위한 노력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는 이번 투고 작품들도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작품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자기 이야기를 객관화시켜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각자 이야기에 몰입했을 뿐, 정작 작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이다.

〈사과〉는 무엇보다 흥미로운 설정과 상상력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단지 아이디어 차원에 그쳤을 뿐 구성이 허술하고 작위적이라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 작품에 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슴으로 쓰는 감동을 주는 글이었으면 하는 점이다. 인용 문장이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한기동 이야기〉는 기억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다뤘다. 하지만 상처의 원인으로 폭력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한계였다. 상처만 다독일 뿐 근원을 찾으려 하지 않으니, 이해 역시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천국으로 모십니다〉는 유사한 문제를 다루었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인지과정을 세밀하게 다루었다. 다만 고찰의 폭이 매우 한정적이고, 과정 표현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점이 아쉬웠다. 두 작품의 결말은 공통적으로 작위적이다. 이는 구성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보다 큰 원인은 작가의 사유가 넓고 깊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등으로 〈천국으로 모십니다〉를, 2등으로 〈한기동 이야기〉를 선정했다. 모든 작품이 나름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보다 좋은 작품을 창작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평가 등급	평가항목 (논문 / 문학)						총 점
	글의 독창성	주제의 중요성	논리 전개명확성	글의 구성 (짜임새)	기존연구 및 참고자료 활용의 적절성	미학적 완성도	
A(25점)							총 점
B(20점)							
C(15점)							
D(10점)							
E(5점)							
	_____ 점	_____ 점	_____ 점	_____ 점	_____ 점	_____ 점	



(제2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1등 수상작)

# 천국으로 모십니다

김형원(교육 · 국어 12)

“이 집이야.”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한 가운데서 검은 소용돌이가 위잉 소리를 내고 있다. 나는 얼른 문을 닫았다. 처음에는 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파리떼만 봐도 기절할 뻔 했는데... 그 때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 내게 전화를 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형이다. 난 전화를 꺼 놓는다.

“거,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약취 새나오지 못하도록 신경 좀 써줘요.”

문 밖에서 관리소장이 이런 일이 생겨 귀찮게 되었다는 말투로 말한다. 특수 테이프로 문틈을 막는다.

“시작할까?”

장 과장과 나는 먼저 고인의 방으로 가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 직업은 특수 청소부다. 요즘은 유품 정리인이라고도 부른다. 혼자 살다 죽거나 자살한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다. 범죄 현장을 치우는 것도, 죽은 동물을 처리해달라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이런 고독사가 우리 일의 대부분이다.

“성격이 깔끔한 아가씨였나 보네.”

장 과장은 3단 서랍장을 열고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면서 말한다.

“반듯하게 옷들이 잘 개켜져 있어.”

난 대꾸도 안하고 묵묵히 내 일만 할 뿐이다. 책장의 책들을 모두 꺼내 상자에 담는다. 어찌나 많은지 책만 세 상자도 넘게 나온다. 이 여자도 누구처럼 엄청 책벌레인가 보네. 몇 권 슬쩍해서 가져다 줄까. 하다가 딱 찬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시취(屍臭)가 가득할 텐데 갖다 주긴 누굴 갖다 준다고.

“이 책장 먼저 거실로 내놓을게요.”

장 과장이 끄덕이며 상자 위에 쌓아둔 책 몇 권을 집어 든다. “우울증 스스로 극복하기, 굿바이 우울증,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92가지 방법... 책을 산 날짜들을 써봤는데 요 몇 달 사이네... 쫓쫓... 얼마나 힘들었으면 책에다 의지를 하려 했을까...”

우울증? 사는 게 복에 겨워 미친년 날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자 혼자 24평 아파트에 그것도 들어보니 자기 명이라는데, 여형도 많이도 다녔네. 냉장고에 붙여진 사진들을 보니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우울증은 개뿔. 나처럼 죽도록 일만 하면서 변변찮은 행 놈까지 챙겨가면서 살면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게 다 부족한 것 없이 자란 것들이 고독이다 외로움이다 해서 지랄 염병이 걸리는 거다.

“사람이 혼자 살면 안 되는 거다. 사람 사는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야... 그래야 웃는 날도 있고 울 날도 있는 거야. 감정을 표출하고 살아야 이런 병도 안 생기고 또 이렇게 가지도 않고...”

장 과장이랑 일을 하면 다른 사람과 일할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빨리 해치우고 가면 될 것을 저렇게 앉아 감상이나 떨고 있으니... 장 과장 일하는 게 꼼꼼하고 유가족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줘서 회사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니, 사실 회사에서는 그만두지 않고 오래 일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한다.

“자네도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러고 살아야지.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하고... 응? 애인이랑 찍은 사진인가 보네... 이것 보라.”

아우! 귀찮아 정말. 다음부터는 같은 조로 짜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 같네요.”

“뒤에 이런 것도 쓰여 있다. 왜 나는 알지 못했을까? 내 생애 행복한 날들은 창씨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었음을...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서...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 울면서 썼나 보네. 여기 펜 번진 거 보이지? 가엾어라... 애인 먼저 보내고 혼자 이렇게 지냈나 보네...”

명탐정 나셨네. 장 과장은 액자를 쓰다듬더니 박스에 넣는다. 방취포장을 해서 베란다를 통해 집을 내린 후 우리는 부패물을 제거한 뒤 일일이 살균 소독을 했다. 시취는 사라지고 이 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흔적 역시 없어졌다.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내 소매를 잡았다. 또? 장 과장은 잠시 기도를 한다.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하길.”

왜 죽고 싶어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까지 해야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자살인데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배운 건 없지만 그 정도는 안다.

“자네는 이 일을 왜 하나?”

일 끝나고 돌아오는 차에서 장 과장이 묻는다. 그냥 가만히 가지, 운전하는 사람 피곤하게... 핸들을 꺾으며 대답한다.

“돈 벌려고요.”

“돈은 다른 일로도 벌 수 있잖아. 나야 이제 나이가 많아 써주는 데가 없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다만 젊은 사람이 왜 이 일을 하나 이거지... 다들 꺼려하는데.”

“생각할 필요 없어서요. 편하잖아요. 월급 꼬박 꼬박 나오고.”

장 과장이 그 말에 웃는다.

“분명해서 좋네. 나도 처음에는 이 일이라는 게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할 수 있고 나 같은 노인네도 써주니까 했네만... 하다 보니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사는 게 뭐고 또 죽는 게 뭔지... 특히 이렇게 외롭게 죽는 사람들... 그네들 삶은 어찌다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었어도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이야기가 듣기 싫어 아까 꺼두었던 휴대폰을 켜다. 많이도 했네. 형이 전화를 엄청 했다. 분명 또 돈 얘기다. 아니면 자기가 쓴 소설 나부랭이 한 번 읽어달라고 하는 전화일 게 뻔하다. 돈도 안 되는 걸 왜 때려치우지 못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신 못 차리고 나이만 먹어간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건지. 차에서 다른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지금 입었던 것은 비닐봉지에 넣어 공풍 산다. 썩은 냄새를 달고 갈 수는 없기에. 머리에 비닐같은 모자를 쓰고 또 회사 모자를 한 번 더 쓴다. 손에도 소독약을 뿌리고 싸구려 향수를 쏘아 붓는다. 경리가 실수하는 바람에 스케줄이 꼬여 하루에 두 탕을 뛰게 되었다. 우리 일은 몇 년 전부터 점점 많아진다. 회사 차원에서 좋은 일이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마냥 좋다고 하기에는 왠지 찻찻하고 미안한 구석이 있다.

“다음 현장은 어디지?”

“00동이요. 안 막히면 30분이면 가겠는데요. 여기 현장 사진요.” 나는 뒷좌석에 던져놓았던 봉투를 손을 뻗어 집은 뒤 장 과장에게 건넨다. 장 과장은 사진을 유심히 본다. 솔직히 현장 가면 최대한 빨리 사진 찍고 견적 뽑아서 나오는 편이다.

“도배까지 끝내려면 시간 좀 걸리겠군. 가족은 만나봤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다. 저 아파트네. 땅값도 비싸다는 이곳에 저런 아파트라니. 견적낼 때 가보니 평수도 어마어마하던데.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저런 집에서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다. 그것은 어떤 기분일까. 어떻게 살아야, 아니 어떻게 살아왔어야 저런 곳에서 살 수 있는 걸까.

“여동생이 왔었어. 견적 내는 데 비싸다 소리도 안하고 100원도 안깎고, 설명해주면 네, 네 하더라고. 여기예요.”

사람들은 참 웃기다. 가족이 죽어 눈물을 펴펴 흘리면서도, 이리저리 혼자 죽었다고 가슴을 치면서도 돈 얘기가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진다.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투덜거리고 다른 데는 애프터서비스까지 확실하다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또 따진다. 이런 일

에 돈 쓰는 게 엄청난 손해라고들 생각한다. 그럼 혼자 죽어 돈이 나가게 생긴 이 상황을 만든 고인은, 죄인이 된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장비를 들고 가는데 입구부터 문이 있다. 괜히 짜증이 난다.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기분. 처음부터 거부당하는 기분이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다 되었다. 유가족에게 전화를 하는데 경비가 수상한 눈빛으로 다가온다.

“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취가 제대로 감추어지지 않았는지 그가 코를 막으며 쩡그린다. 그러면서도 내가 들고 있는 장비들을 유심히 본다. “00호에 특수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장비들이고요.”

“아, 그 남자 혼자 살다 화재로 죽었다는... 혹시 자살이요? 뭐 연탄불 피워놓고 죽고 그런 건 아니죠?”

장 과장이 제대로 설명을 하기도 전에 경비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주위를 살핀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구만.

“그런 소문 나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주민들 난리날 게 뻔하니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는 것만 봐도 경비실 전화에 붙이 날 텐데... 두 분께서도 괜한 소리 하면 안 되십니다. 워낙에 이런 소문은 빨라서...”

“걱정 마십시오. 비밀에 부치는 것도 저희가 지켜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때 그 여동생과 통화가 되고, 전화를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여자가 보인다. 경비,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경비는 냄새가 신경쓰이는 듯 자꾸만 킁킁거리다.

“엘리베이터 소독부터 하겠습니다.”

장 과장이 눈치껏 말하자 경비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 듯 보인다. 경비가 다시 당부를 한 뒤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를 소독하고 난 후 현장으로 간다. 여자가 문을 따준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기다릴게요.”

“중요품이 나오면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 과장과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선다. 까맣게 타버린 벽지가 눈에 들어온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집과 죽었을 때의 집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한 여름의 폭풍 쪼는 날씨에도 한기가 느껴져 양손으로 팔을 비빈다. 사람이 죽은 곳은 왜 추울까.

“경비 말대로 연탄불 피우고 자살한 거예요? 견적내려 왔을 때도 아까 그 여자가 아무 얘기도 안해줬거든요.”

장 과장이 주위를 유심히 보더니

“그런 것 같진 않네.”

그 말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나저나 장 과장도 형사 다 되었네. 하긴 이 일 하다보면 사람 죽은 현장만 주구장창보니 그 방면에는 도가 트는 것도 당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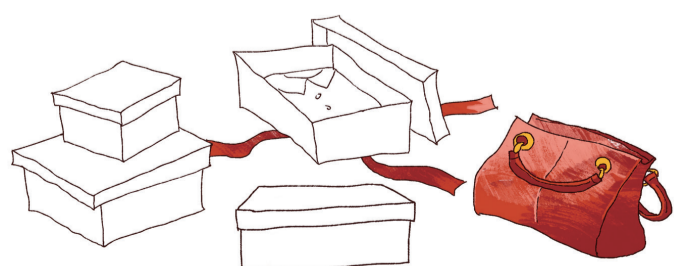
“시작할까요?”

방에 있는 가구를 거실로 내다놓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품을 정리한다.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많지 않아 큰 가구만 옮기면 되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큰 침대가 있고 그 옆에는 액자가 하나 있다. 부인과 아이들로 보이는 사진이다. 장 과장이 들어온다.

“이 방은 별로 할 게 없네요.”

“이 넓은 집에 웬하니 혼자 지낸 것 같네. 토끼같은 자식들이랑 부인은 어찌고...”

장 과장이 액자를 유심히 보다가 소중하 듯 유품 정리함에 넣는다. 그것이 유품 정리함에 들어갈 때까지 나도 유심히 보았다. 자살이라는 헛짓거리가 아니라 그런지 이 아저씨는 왠지 평소와 다른 마음이 생긴다. 여동생이 미인이기도 하고, 그 액자를 보니 또 부러운 마음이 생긴다. 여자를 만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그 모든게 나오는 너무도 먼 얘기라. 방취포장을 하고 내려보낸 뒤 소독 후 배 작업까지 하고나니 다 저녁 때 일이 끝났다. 여동생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습니다. 들어와 보시겠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가지런히 신발을 벗고 마치 처음 온 집인 듯 그렇게 들어온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문자보면 연락하라는 형의 메시지가 와 있다. 그런 메시지보다 내게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시간만 보고 답문은 보내지 않는다. 방을 둘러보던 여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이거 또 시간 걸리게 생겼네. 미인이라는 말도 취소다. 남의 시간 야까운 줄 모르고 자기 감정에 복받쳐 유난을 떠는 인간들은 싫다. 요즘은 서비스라는 게 중요해져서 이렇게 우는 여자를 두고 그냥 갈 수도 없다. 장 과장은 여자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오빠... 언니랑 조카들 필리핀으로 보내고 나서 쪽 혼자 지냈어요...”

시작이구만. 벌써 피곤해진다. 이런 부류들이 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잘 오고 애들 방학 때마다 한국에 꼬박꼬박 오고 그랬는데...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애들이 와도 서로 데면데면하고... 이게 무슨 가족이냐며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돈만 부쳐주고... 사실 오빠도 힘들었거든요. 구조조정 되면서 회사 그만두고 그래서 시골집에서도 좀 보태주고...”

여자의 뜬금없이 시작된 얘기는 끝날 줄을 모른다. 난 또 시간을 보며 장 과장에 눈짓한다. 이 여자는 우리한테 냄새도 안 나나 보나. 비위도 좋네.

“오빠 눈에서 희망의 빛이 꼭 꺼졌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끔 와서 반찬도 가져다 놓고 했는데... 오빠 그렇게 되니 부모님께서도 힘들어하시고 보는 저도 답답하고... 가스불에 찌개 올려놓고 술 마시다 잠들었나 봐요. 술만 안 마셨어도...”

“부인과 자녀분들은...”

빨리 가자는 눈짓인데 장 과장은 여자의 말을 거른다.

“식 끝나고 바로 갔어요. 보험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이 집... 혼자 살기에 넓어서 작은 집으로 옮기라고 하니 애들 오면 좁아서 안된다고... 자기는 그 공상을 떨면서 이 집은 매일 쓰고 닦고 했던 모양이에요...”

여자의 시선을 따라 장 과장 역시 집을 다시 둘러본다. 처음 우리가 왔을 때와 다르게 까맣게 탄 벽지는 파스텔 톤의 벽지로 새로 도배를 했고 가구가 다 내간 상태가 새 집처럼 깨끗하다.

“정리해서 부동산에 내놓으려 했는데... 그러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보니 희망이 생기네요. 새카맣게 타버린 이 집에서 오빠 혼자 쓸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정리된 걸 보니... 어쩐지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몇 번이나 꾸벅 인사를 했다. 인사 말고 돈을 좀 더 챙겨 주던가.

“다녀왔습니다.”

회사로 들어서니 경리만이 우릴 향해 까딱하며 아는 척을 하고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화이트보드를 보니 스케줄이 꽉 차 있다. 뭐 이렇게 혼자 죽는 사람이 많아.

혼자 죽는 건 웬지 제대로 죽지 못한다는 기분이 든다. 특히 자살이라면 더더욱.

“김 대리님. 얼른 사위하세요. 냄새 때문에 죽었어요.”

경리가 뼈저리게는 창문을 열며 오만상을 찌푸린다. 방향제를 칩 칩 뿌리더니 자기 옷이랑 머리카락도 킁킁 냄새를 맡아 본다. 유난은. 현장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주제에.

하지만 이번 경리는 6개월 이상을 버려준 고마움에 그 말을 꼭 참고 웃어 보인다. 현장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가위에 눌린다느니 귀신이 보인다는니, 냄새 때문에 밥도 못 먹었다느니 등의 이유로 그 이상을 버린 경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 여자가 하나 있으니 분위기도 칙칙하지만은 않고 저렇게 책상에 꽃이라도 꽂혀 있다. 나쁘지 않다.

“네. 천국으로 모십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경리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얼른 나가라고 손짓을 한다.

“네. 먼저 저희 직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견적을 뽑아야 하겠는데요. 이게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직접 가서 현장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수건 하나를 목에 걸치고 샤워실로 들어간다. 칸막이도 없이 샤워기만 쪽 울어서 있지만 이것도 감지덕지다. 목욕탕에 가서 박박 씻고 싶지만 시체 썩는 냄새를 달고 갔다간 쫓겨나가거나 그 목욕탕이 문을 닫거나 둘 중 하나이기에 가지 못한다. 집에 가서 느긋하게

씻고 싶지만 집까지는 또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차가 두 대 있는 사람도 있다. 출퇴근용 차량 작은 거 하나랑, 평소에 가족들이랑 타고 다니는, 출퇴근용 차는 시취가 이미 배어 가족들은 태우지 못한다고 한다. 이번 달 조금은 빠져 나갔고... 카드가 다음 주... 그 전에 관리비 나갈 것 있고... 때수건에 비누를 잔뜩 묻혀 살갓이 벗겨지도록 닦고 있는데 장 과장이 들어온다.

“끝나고 술이나 한 잔 하지. 경식이야 오늘부로 회사 그만둔다고 하더군. 자네가 입사 동기 아닌가.”

또 그만뒀? 나는 속으로 혀를 꼰꼰 찬다.

“예. 그렇게 하시죠.”

사실 죽은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한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건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냄새 좀 나면 어떻다고. 통장에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놈들은 아직 세상 쓴 맛이 뭔지도 모르고 약해빠진 인간들로만 보인다.

회사 근처 돼지껍데기 집에 장 과장과 경식이와 왔다. 그만 두는 일이 다반사라 회사 차원에서 따로 회식을 하지는 않는다. 넓직한 돼지 껍데기 몇 장을 올려놓고 난 뒤 서비스로 나온 계란찜을 내 앞에 갖다 놓고 먹는다. 뜨끈한 걸 몇 숟갈 떠먹으니 그제야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다. 이 일을 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현장을 다녀오면 속에 뭔가 콕 걸린 듯하다.

“한 잔 받게나.”

장 과장이 경식이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준다. 두꺼운 안경을 끼고 융통성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가 두 손으로 잔을 받는다.

“그동안 고생했네.”

“고생은요...”

“그래, 이제, 어찌려고...”

경식은 술을 한 잔 쪽 들이킨 뒤 그 잔을 다시 장 과장에게 준다.

“다른 일 알아봐야죠. 몇 달 쫓고 싶는데 그럴 형편은 안 되고요... 그래도 무슨 일이든 이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 형이다. 대체 이 인간은 내가 아니면 연락 할 사람도 없나. 휴대폰 닫고 집계를 집어 돼지 껍데기를 뒤집는다. 그러면서 메뉴판을 훑듯 본다. 삼겹살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계산은 늘 장 과장이 하니 일단은 눈치만 보고 있다.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텼었는데 왜 갑자기...”

그 말에 경식이가 고개를 젓는다.

“갑자기도 아니에요.”

경식이가 한숨을 한 번 쉬더니 혼자 소주를 따라 마신다.

“솔직히 이 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난달에 현장 나갔을 때, 왜 그때 시체도 아직 내가지 않았을 때 있었잖아요. 경찰이 시체 처리하는 중간에 딱 가가지고선.”

그 때 그 일을 지나가는 말로 들었던 것을 떠올린다. 경식이가 나간 현장에 시체가 아직 있었다는. 나는 현장 나가면서 한 번도 시체를 본 적은 없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시체를 내간 그 후를 정리하는 일인니까. 그 방을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시체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진다.

“그 때 경찰들도 계속 왔다갔다 하고 같이 갔던 신입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가는 바람에 하역된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경찰들이 무슨 조사를 한다고 시체도 내가지 않고, 저도 그 다음에 또 현장같은 일이 있는 데다가 신입은 가버려 혼자라 좀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시체 근처만 어슬렁거리며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칠 노릇이죠. 내 발 밑에 시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때 뭘 밟고 미끄러졌는지 시체 위로 넘어졌어요...”

그 말에 장 과장도 놀랐는지 순간 굳는다. 나 역시도 썩든 돼지 껍데기가 그대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한다.

“놀랐겠지만...”

“그 뒤로 꼼자리도 사납고, 잘 먹지도 못하겠고... 자려고 누우면 그 썩은 시체가 눈앞에 툭 나타나요. 현장에 나가는 것도 손발이 다 떨리고...앞에서 다가오는 사람만 봐도 시체가 흐느적거리며 걸어오는 것 같고...이대로 살다가 미쳐버리겠어서...”

경식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장 과장은 그런 그의 등을 두드려 준다.

“저 같은 놈이 어디 가서 이런 월급 받으며 일하나 싶어 꼭 참았는데 더 이상은 참아지지 않아요. 우선 살아야겠으니... 과장님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장 과장이 술잔을 만지작거리다.

“글쎄... 자네들은 어떻게 모르지만 난 이 일이 싫지 않네. 아니, 우스웁지 모르지만 자부심도 느끼고 만족도 한다네.”

그 말에 나와 경식이가 동시에 장 과장을 어이없다는 듯 한편으로는 존경스럽다는 듯 쳐다본다.

“왜요?”

딱히 궁금하지 않지만, 대충 말을 받아주다가 고기 좀 더 시키자고 말하려고 물어본다.

“평생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을 정리해주는 것도 살아생전 만큼이나 큰 인연이란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더군.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 일이 그냥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고...”

일장 연설이 또 시작된다.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듣는 척을 하고 몇 개 안 남은 돼지 껍데기를 집어 먹는다.

“그런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직업이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아, 예, 시체랑 인연을 맺어서서 좋으시겠어요.

“고기 좀 더 시킬까요?”

“그러게. 그 인연이 내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준 선생님과 같네. 자네를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 희망을 얻는다는 걸 내게 가르쳐 주었지. 이런 건 수업료를 많이 내도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지...”

삼겹살이 나오고 불판을 한 번 간 뒤 고기를 굽는다. 오늘은 배에 기름 좀 끼겠군.

“참 우습지 않은가... 사람이 죽어간 현장을 치우면서 사람 때문에 희망을 얻는다는 걸 배우니 말일세... 시취가 가득한 곳에서 그 끔찍한 걸 보면서 사람이 소중한다는 걸 배우니 우스워... 우스워...”

장 과장이 소주 한 잔을 들이킨다. 나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곳에서 희망을 보다니. 가장 절망스러운 곳에서 희망을 찾다니. 그 희망이라는 게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걸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예전처럼 보이지가 않아. 무슨 일은 없는지, 걱정이냐 고민은 없는지 더 살피고 챙기게 된다네... 왜 그런지 아는가?”

대꾸하기 귀찮아 고개만 젓는다.

“후회할까봐... 왜 몰랐을까... 왜 곁에 있어주지 않았을까... 내 자신이 후회할까봐 그러네... 결국엔 또 이기적인 생각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 남게 될 나를 걱정하는 셈이니까... 죄책감에 살아갈 나를 생각하는 셈이니까... 사실 나도 잘 모르겠네. 이만큼 나이를 먹어도 모르겠어.”

장 과장이 헛웃음을 짓는다.

“네, 맞습니다. 거기가 어디시라고요?”

올 여름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여름보다 덥다. 장 과장과 함께 트럭에서 내려 의뢰인을 만났다.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 아, 왜 자꾸 전화야.

“어머님이십니다. 저와 집사람이 정리하러다 도저히 냄새가...” 옆에 있는 고급 세단을 힐끗 보니 남자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타고 있었다. 창문을 뚫으며 연다.

“여보, 이거...”

“비용은 미리 입금했는데 이견 두 분 수고비로... 식사라도 하세요.”

장 과장이 묵묵히 그 남자를 보는 사이 나는 얼른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갔다.

“한 달 좀 넘게 있다가 발견된 모양이더구나... 부모가 죽어도 모르고 있다가 냄새가 나서 이웃이 신고하는 세상이라니...”

노인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세간이 별로 없었다. 빨리 끝나겠군.

“설거지가 달랑 밥 그릇 하나구나... 밥에 물 말아서 있는 반찬 꺼내다가 먹었겠지... 반찬도 김치 하나뿐이었네... 외로운 노인네였어...”

노인네들이 다 그렇지 뭐. 장 과장이 안방으로 온다. 난 옷장에서 옷을 빼고 장 과장은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정리한다.

“통장을 보니 자기한테 쓰는 돈은 없었구만... 돈은 이렇게 모아서 뭐하려고... 생전 아버지 계시던 집 한 채 냄새나서 정리도 못하는 자식들... 불쌍한 양반... 자식이 죽으면 그 썩은 시체를 꺼내고 우는 게 부모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게 못해... 암...절대로 못해. 썩은 육신에 냄새나고 파리 꼬이고... 자식들은 못하는데 부모는 시체라도 꺼내고 울부짖지... 자네는 그 심정을 이해하겠나?”

부모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일이나 빨리 하시지요. 진동이 계속 울린다. 이놈의 형이! 문자가 온다.

‘저녁 먹으러 와라.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만나서 보면 뭐 좋을 게 있다고. 나한테 육이나 먹고 쓸쓸한 얼굴을 하며 앉아 있을 게 뻘하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이다. 그런데도 뭐가 좋다고.

‘뵈서’

‘기다린다.’

일도 빨리 끝난 데다 수고비도 받았으니 운이 좋은 날이다. 다음 호출만 있으면 이대로 집으로 가서 쉴 수 있다. 게다가 오늘부터는 3일간 휴가다.

“나랑 일하니 답답할 때가 많지?”

네, 라는 대답을 꼭 참는다.

“이 냄새도 역겹고... 맨날 꿈도 뒤숭숭한 걸 꾸고 흑여 손주라도 아프면 내가 이런 일을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가 개운하게 씻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사람의 마지막 흔적을 내가 맡았는데 그걸 해치우듯이 하면 얼마나 섭섭할까 하고... 더러운 것 보는 눈으로, 쓰레기 치우듯 치우면 얼마나 슬플까 하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보내 주려고 하는 거라네... 이해해주게...”

일단은 끄덕인다. 귀찮으니까. 장 과장을 내려주고 집으로 가 씻고 맥주 한 캔을 꺼낸 뒤 텔레비전을 틀었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깔깔거리며 오락프로를 본 뒤 잠들었다. 잠결에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었던 것 같다.

“여기네. 자, 내리자고.”

나는 운전대만 잡고 멍하니 앉아 있다. 장 과장이 뒤에서 장비를 내리고 와서 창문을 두드린다.

“안 내리고 뭐해?”

차에서 내리고 걸어가는데 머리가 후들거린다.

“안색이 안 좋는데, 괜찮은 거야?”

“괜찮습니다.”



장 과장이 앞서 걸어가고 나는 통화기록에 수없이 부재중 통화를 남긴 형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까...”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한다. 입이 바싹바싹 타고.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까...”  
장 과장이 어느 집 문 앞에서 멈춘다.  
“남자 혼자 살고 있었고 자살이라 하네... 이웃에서 신고했고... 들어가 볼까?”  
장 과장이 문을 열었다.  
“뭐하고 있어? 얼른 들어와서 문 닫아야지...”  
난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어디 보자... 남자 혼자 산다는데 음식을 많이도 차렸네... 누군 불렀었나 보네... 쫓쫓...그 사람이 왔으면 이런 번고가 없었을 텐데...”  
장 과장이 그릇과 냄비들을 정리할 동안 난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거 꿈인가? 다시 전화해 봐야겠어. 전화기 폴더를 여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려 전화를 놓쳤다.  
“책이 많네... 책상 살 돈은 없었나 보군... 책들을 다 쌓아두었어. 원고지도 많고...꿈 많은 문학청년이구나 보군... 자네 거기 서서 뭐하고 있어?”  
전화를 주우려는데 자꾸 놓친다.  
“얇은땀이 책상이라... 오랜만에 보군. 신춘문에 공모전...어? 여기 사진이 있는데...”  
장 과장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본다.  
“전화기가, 전화기를 떨어뜨렸는데... 못 줘겠어요...”  
난 쓰러지듯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다. 장 과장이 내게 다가왔다.  
“이게...어떻게 된 일인가...”  
장 과장을 붙잡고 울면서 뭐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그렇게 거기 있었고 장 과장이 모든 것을 정리했다.  
“천국에서 행복하길. 그리고 남은 사람을 지켜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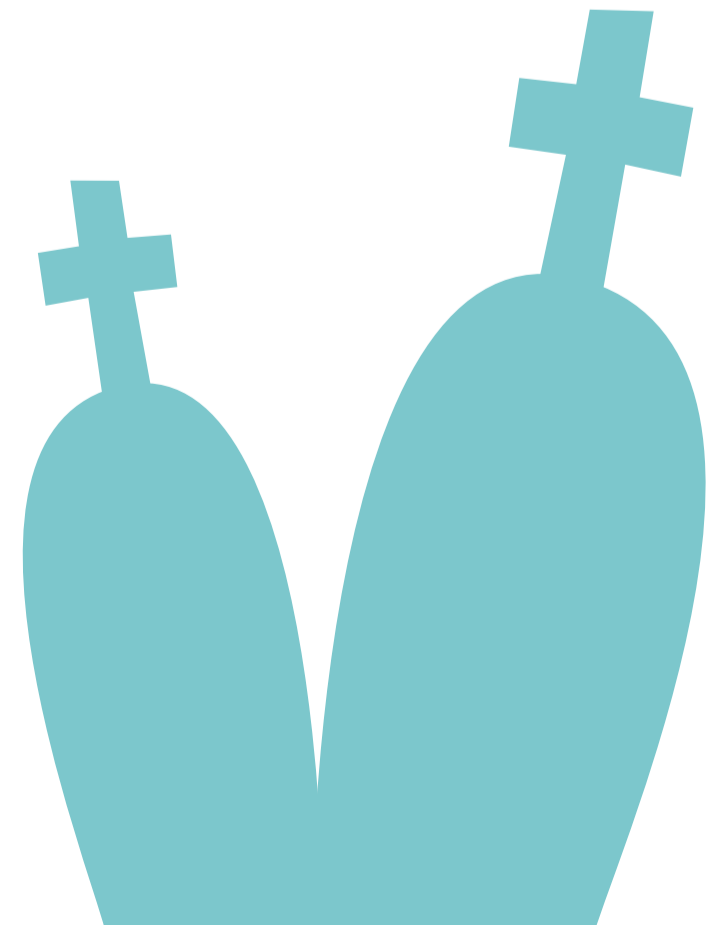
“오늘은 어떤 사람이예요?”  
장 과장은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운전할 뿐이다. 뒷자리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이 바짝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다. 좀 놀려 먹고 싶는데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얌전히 앉아 있다. 그 일 뒤로 부쩍 장 과장은 말수가 적어졌다. 특히 나에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장 과장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도착한 곳은 차에서 내려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하는 동네였다. 조그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의뢰받은 집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나와 기웃거리며 자기들끼리 소곤거리고 있고 한 여자와 남자가 다가왔다.  
“저희가 전화 드렸는데...”  
“지금 바로 시작할 건데 들어와 보시겠습니까...아니면...?”  
“이 노인네가. 이 더위에 땀새가 진동을 할 텐데 어딜 들어가. 땀고 그 청소 하면서 통장 좀 찾아주소. 아버지가 저금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  
듣자 하니 어이가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통장을 찾아달라니...  
“이봐요. 지금...”  
남자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옆에 여자를 다그친다.  
“맞지? 네가 그랬잖아. 분명 아버지가 저금해놓은 통장 있다고.” 동생으로 보이는 여자는 고개만 끄덕인다.  
“작업하다가 귀금속이라든지 통장, 서류 등이 나오면 유가족 분들께 드리지만 그것만 찾기는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 과장이 무덤덤하게 말한다. 난 내가 말하겠다고 눈짓한 후,  
“찾아는 보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품들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 드립니다. 여기 계약서 조항에 보시면...”  
남자가 또 말을 끊는다.  
“이것 봐라. 웃기는 것들이네. 뭐가 힘든데? 어차피 청소하러 왔다가... 청소하다가 나오면 달라고. 아니다. 네가 좀 들어가서 봐라. 혹시 아냐. 중간에서 끌려갈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결국 동생은 오빠의 등쌀에 못 이겨 들어왔다가 1분도 참지 못하고 나갔다. 문 밖에서 오빠가 동생에게 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신입직원 역시 죄송합니다. 한 마디를 남긴 채 입을 부여막으며 뛰어나갔다. 단칸방의 한 쪽에는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고 조그만 텔레비전 앞의 작은 상에는 고인이 먹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냄비와 소주가 있었다. 꽤 많은 소주병들이 방 안에 나뒹굴고 있다.  
“텔레비전에 사진이 있어요. 아까 그 남매인가 봐요... 졸업식 때 찍은 것 같은데 다들 웃고 있어 행복해보여요... 지금은 술만 마시는 초라한 사람이지만 이때는 가슴을 짹 펴고 당당한 모습이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장 과장은 살림을 아무 말 없이 정리한다. 옛날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잘 하고 유품 하나하나 성의껏 포장하더니 이제는 그런 게 없다. 하나하나 매만지던 손길은 없어지고 빠르게 포장을 한 뒤 정리함에 넣는다.  
“과장님 그거 알아요? 재미없어진 거... 불평하긴 해도 과장님 얘기 들으면서 일하면 그래도 재밌었는데... 요즘은 말도 없고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하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불음에도 장 과장은 나 있는 쪽을 한 번 슬쩍 보기만 할 뿐 대꾸가 없다.  
“그런데 죽은 이 아저씨 다 옛날 옷들뿐이네. 신발도 보니까 해졌는데... 어? 통장이예요. 아까 말하던 통장인가 봐요... 만원, 오천 원, 만 팔천 원... 이렇게 해서 오백만원을 모았어요. 이렇게

까지 하면서 왜...”  
분명 이 아저씨는 자식들을 위해 돈이 생길 때마다 저금을 했을 것이다. 도대체 왜 부모는 이렇게까지 할까? 나는 통장을 내려놓는다. 장 과장은 그 통장을 챙긴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사진 말인데요... 아저씨가 많이 만졌었나 봐요... 닳아 있어요... 이렇게 자식들 사진을 보고 만지며 그리워했었나 봐요... 자식들은 알까요? 누군가 자신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만지고 또 만졌다는 것을... 그랬다는 걸 알면 이 세상 조금 덜 외롭게, 덜 힘들게 살아갔을 텐데... 저렇게 험악해지지도 않고요...”  
얼마 없는 유품을 정성스레 상자에 넣고 포장했다. 형이 그렇게 된 후,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형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어 미친 듯 일했고, 나중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 모든 분들이 마음이 담긴 따뜻한 손길에 마지막 길을 가게 하자는 마음으로... 없는 살림살이라 일이 금방 끝났다. 몇 십 년의 사람 인생이 이렇게 금방 정리가 되는 것을 보니 허무하다.  
“기도해야죠.”  
장 과장은 요즘 기도도 하지 않고 나가버린다.  
“천국에서 편안하시길. 그 곳에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길. 그리고 남은 자들을 지켜보며 슬퍼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문 밖에 나오는데 남매가 팔짱을 끼고 서 있는데 그 품이 통장을 내놓으라는 것으로 보인다. 장 과장이 말없이 통장을 내미니 오빠가 낯아채듯 가져가 잔액부터 확인한다.  
“노인네가 많이도 모아놨네.”  
흡족한 표정으로 그것을 안주머니에 넣고.  
“과장님. 그 사진도 드리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내 말에 장 과장이 사진을 소매로 쓱 쓱 닦아 오빠에게 내민다.  
“쓰레기는 알아서 버려 주세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라니!”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장 과장은 고개를 내젓는다. 정작 소중한 건 알아보지 못하니. 그런 걸 알아보지 못하는 저 인생이 불쌍하다. 저런 인생이 다른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을까.

“키 주세요.”  
돌아가는 길에는 내가 운전하려 했더니 장 과장이 자기가 먼저 운전석에 탄다. 그 날 이후로 내게 운전권을 시키지 않는다. 차에 타면서 안전벨트를 한다. 혹시나 그 신입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잠시 기다리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도 틀렸나 봐요. 그 사람 그렇게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걸 보니...”  
신입이 들어와서 현상으로 첫 출근을 하면 그 길로 퇴사다.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도 그럴만하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장 과장이 시동을 걸고 차가 출발한다.  
“회사 들어가서 씻고 식사하러 같이 가실래요? 간단에 돼지 껌데기에 소주 한 잔 핑기는데.”  
장 과장은 말없이 운전만 한다.  
“새로 들어온 경리 있잖아요. 귀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 붙이면 대꾸도 안하고 어쩌나 씩씩맞은지... 뭐 여자는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더 끌리지만.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집에 가면 쓸쓸해요. 어두운 방에 불 켜는 그 기분. 과장님은 모르실 걸요.”  
말없이 한들을 꺾는다. 하늘날골공원 방향.  
“과장님도 여기 아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형도 여기 있잖아요... 잘 됐네... 나도 형이나 보고 가야지. 우리 형 되게 징징대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 좋아하고 챙겨 주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그거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심할까요? 오늘 가서 놀아줘야지.”  
장 과장은 날골공원에 도착해서 차를 세운 뒤 내려서 담배 한 대를 태운다.  
“과장님 담배 피우세요? 원래 피우셨나? 몰랐는데...”  
난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장 과장은 하나를 끝까지 다 핀 뒤 작은 한숨과 함께 날골당으로 올라간다. 난 형의 유골함 앞에 섰다. 장 과장도 내 옆에 섰다.  
“형... 나 왔어...”  
“잘 있었는가...”  
난 장 과장을 보고 한 번 씩 웃는다.  
“이제야 과장님 목소리 한 번 들네. 나한테는 말도 안 하더니...”  
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통화기록에는 온통 형이다. 형에게 온 문자, 형에게 온 전화. 하지만 내가 먼저 전화한 적도, 문자를 보낸 적도 없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핑계다.  
“형...나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미안하던 말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나를 찾는 그 때 내가 외면해서... 기다리게 해서... 그 순간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어 형...”  
이제야 나는 형의 사진을 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형... 장 과장이 소매로 유리를 닦는다.  
“그런데 형...꼭 이렇게 해야만 했어? 이게... 형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야? 나 물어보고 싶었어. 그런데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물어볼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형을 혼자 두었다고 이젠 나를...혼자 두기로 한 거야?”  
“바보같은 사람...”  
“맞아요. 우리 형은 바보야. 예전에는 나만 바라봤던 바보. 그리고 나같은 놈 때문에 죽은 한심한 바보...”  
“자네 형 마지막 가는 길을 내 손으로 보낼 줄 누가 알았겠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 대신에 형의 집을 정리해준 사람이 장 과장이었다. 영안실에 미친 놈처럼 앉아서 있을 때에도, 장례식에서도 나를 지켜준 사람은 장 과장이었다. 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나를 걱정해준 사람.  
“그리고...자네까지 내 손으로 보낼 줄 누가 알았겠나...”  
“자네까지...?”  
장 과장이 바라보는 건 형이 아니었다. 그 옆에...나다... 내 사진과 내 생년월일이 적힌 유골함이 형의 옆 칸에 있다. 내가 왜...  
“자네 형이 그렇게 되고 다른 이들 대신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 나가고 미친 듯이 일만 하기에 그래도 실의에 빠져 있는 것보다 낫다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아 찾아가니 자네 형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더군...”  
똑같은 방식이라니...이게 도대체 무슨...  
“형의 죽음이 자네 때문이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자네 이럴 수밖에 없었나... 그 죄책감은 애초부터 자네 몫이 아니었고... 자네 몫이라 했어도 속죄하는 방법이 그저 형을 따라가는 것이었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내가...내 얘기가? 형의 죽음 이후부터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피골이라고는 형 밖에 없었고, 친구도 없었던 자네가... 그래도 몇 년간 같이 일해 온 나한테는 마음을 열고 기뻐 줄 알았는데... 아니, 기대고 있는 줄 알았지... 말은 안해도 내심 그런 줄 알았지... 회사에서 다른 이들 말은 안 들어도 내 말은 잘 들곤 했으니까...”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의지 많이 했었어... 늘 제 걱정 해주셨는데...”  
이상하다. 내가 장 과장을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따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내가 죽은 뒤다... 내가 죽은 후에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죽은 후에 난 나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보내주는 법을 배웠다... 내가...죽은...후에...  
“아니지... 나는 내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네... 자네를 생각하고 가없이 여기는 이가 옆에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목숨을 끊었겠는가... 날 생각해서라도 살았겠지... 날 핑계대서라도 살았을 거야... 사람은 자기가 잠을 지푸라기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그걸 부여잡고 사는 건데... 난 자네에게 그런 지푸라기 한 조각도 되지 못했네...”  
그제야 깨닫는다. 유리로 된 납골당에 내가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난 죽었었지... 처음에는 바보같이 나 같은 놈을 기다리다 죽은 형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나에게 죽어도 아까울 게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 눈물 한 방울 울려줄 이 없는, 나를 버린 세상인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싶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나도 죽었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했었지.  
“자네를 보낸 후 내가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었나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정작 곁에 있는 자 하나 챙기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죽은 사람들을 정성스레 보낸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장 과장의 눈빛에 쓰러린 후회가 담긴다. 그 눈을 보니 내 마음도 생채기에 소금을 뿌린 듯 따끔따끔하다. 나도 그랬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남은 자들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지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난 내 자리에서 내 일을 계속 할 것이네... 죽은 자들은 정성을 다해 천국으로 보낼 것이야 산 자들은 온 마음을 바쳐 그들 마음에 희망의 꽃을 피워줄 것이네...”  
눈부신 빛이 보인다. 나는 안다. 내가 저 빛 속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비로소 열리는 저 빛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빛을 향해 걸어가며 나는 생각한다.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 내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었더라면 저 빛이 아닌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끝〉



〈제2회 외대학보 학술대전 2등 수상작〉

# 한기동 이야기

이인희(서양어 · 독일어 10)

아침 7시 45분. 평소보다 늦었지만, 대중이라도 아침밥을 챙겨 먹을 여유는 있는 시간이다. 어느 때처럼 혼자 사는 이 공간의 적적함을 덜어 줄 아침 뉴스를 듣기 위해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리모컨을 집어 든다. 막 들려오는 소식은 지난 4년간 6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연쇄살인범이 형사들의 잠복수사로 지난 밤 서울 어느 모텔에서 검거되었다는 속보이다. 이런 사건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소름끼치도록 끔찍한 일이지만, 나는 덤덤히 한기로 들고 한기로 흘려들으면서 물 부은 찬밥을 소리 없이 떠먹는다. 이윽고 아나운서가 그 연쇄살인범의 이름 석자를 입에 담는다. 오래돼서 눌러 붙은 멀치 볶음을 향한 젓가락질이 멈춘다. ‘한기동’ 분명 흔치 않는 이름이다. 그 세 글자는 내가 아는 이름이다. 그래, 사실 잊기 힘든 이름이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자 후드 티 셔츠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연쇄살인범의 모습이 보인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모습을 거의 알아 볼 수 없었지만, 나는 몸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낀다. 잠깐 화면에 스쳐지나간 얼굴을 본다. 나는 그 때서운 눈매를, 그 얼어버린 눈빛을 본능적으로 알아본다. 잔혹한 불꽃놀이로 몽개놓은 얼룩진 수채화 같은 나의 유년시절, 그 기억의 단편 속에 그가 있다.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내가 여섯 살 때 엄마는 유별나게도 교육에 관한 욕심이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참으로 여러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저 엄했던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했고, 그것이 나에게만 당연했다. 당시 수학교육원에서부터 웅변학원까지 여러 학원에 다녔었다. 심지어 예술도 일찍 접해야 한다는 엄마의 앞선 생각에서 나는 미술학원과 피아노 학원도 다녔었다. 당시에 미술과 음악을 접하는 나 또래 아이들은 소수에 속했다. 그 때 다녔던 학원과 개인교습을 세려면 손가락 여섯 개는 더 접어야 했다. 하지만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 탓에 동네에서도, 학원에서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다. 웬지 모르게 그 어린나이에 도 자신이 무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런 소외감 때문에 나는 매일 빠짐없이 가야하는 학원에서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온종일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인 여섯 살짜리의 속은 어딘지 모르게 성숙했다. 어린 나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구분 했었고, 그 외부세계 또한 내면의 경계를 거쳐 받아드릴 수 있었다. 그런 성숙함 때문인지 나는 거의 때를 쓰지 않았고, 나로 인해 부모님이 애먹는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 어린아이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이치라도 이해한다는 듯이 과묵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나는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예민했다. 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었고, 또래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함부로 언행해서 상처를 주지 않았다. 난 그렇다고 쉽게 우는 아이는 아니었다. 자아의 감각이 빨랐던 만큼, 자존심도 유난히 강했다. 유년 시절 내가 가장 깊게 상처 입었던 곳은 유치원과 피아노 학원이었다. 그때의 상처는 기억이라는 끝없는 수평선 위에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흉측한 모습의 조각품으로 놓여 있다.

노란색 모자. 빨간색 바지에 파란 리본을 두른 피노키오 그림 스티커가 붙은 봉고차는 동네를 돌고 돌아 아이들을 피아노 학원으로 실어 나른다. 2층에 위치한 피아노 학원 밖 창문에는 ‘피노키오 피아노 학원’이라는 글씨가 무지개 색으로 붙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 찬’이라는 수식어구가 대롱대롱 떠다니는 듯이 붙어 있었다. 그 꿈과 희망이 가득 찬 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어린이들은 큼직한 계단을 거쳐야 했다. 검정색의 음표들이 붙여진 학원 문을 열면 거실 같은 큰 공간에 검고 멋진 그랜드 피아노 하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학원 내부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인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피아노 연습방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연습방에는 아이들이 혼자서 연습 할 수 있는 조그만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방마다 창문이 크게 나있어 그곳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었다. 피노키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은 두 명이 있었다. 둘 다 젊었고, 꽤나 치장을 했던 서울 말씨의 아가씨들이었다. 그 중 한명은 윤기가 흐르는 긴 곱동발 생머리를 길게 다듬은 손톱으로 쓸어내리곤 했다. 어린 눈에도 그녀의 그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부러워 자주 결눈질 했었다. 그리고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손톱은 때면 색이 바뀌어 있었다.

“이것 봐, 진짜 같지?”

그녀는 긴 인형 같은 인조손톱을 붙이고선 피아노 연습을 하는 아이들의 살구 같은 손등 위에 손톱을 스쳤다. 나 역시 그 소름끼치는 감촉을 경험 했었다. 다른 한 명은 단발머리였고, 자주 짧은 치마를 입었다. 그녀는 항상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런 높은 굽을 신고 어떻게 걸어 다닐까 의문을 가지며 그 뾰족 구두를 바라보는 시선은 가위처럼 끈 새침한 다리에 닿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상냥한 말투로 대하다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곤 했었다. 피아노 의자에 걸터 앉아 턱을 괴고 있던 단발머리 여선생은 언제나 내게 낮설었다.

“3번 방 나와서 쳐봐.”

문고리 열리는 소리는 머리 뒤통수부터 매섭게 들리는 듯 했고 나를 놀라게 했다.

그 조그마한 연습방에서 정해진 연습량을 마치면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로 가서 그 젊은 선생님들 중 한명에게 검사를 맡아야 했다. 우리는 열 번 씩 연습을 하는 동안 악보 위에 빗살무늬 모양으로 횡수를 표시했다. 빼빼빼뿔한 빗살무늬는 아이들이 방에서 열 번 곡을 연습 했다는 증거였지만, 나는 피아노에 흥미가 없었기에 가끔 한번 치고 두 번씩 표시했다. 그럴 때 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한 구석이 간지러워지곤 했었다. 돌아다니면서 창문을 통해 아이들을 감시하는 선생님이 훗시 내 은밀한 행동을 볼까 고개를 수도 없이 돌려 확인했다.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뒤로 단발머리 여선생의 눈초리가 느껴지는 듯 했다. 사람은 악기를 두 가지 이상은 연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흥미의 문제가 아닌 해안만 하는 어떤 것의 범주에 속해있던 피아노연습은 내게 하얀 도화지 위에 의미 없는 선을 긋는 것과 같았다. 그 날은 비가 하늘에서 퍼붓듯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나의 빨간 우산위의 빗소리가 작은 돌맹이들이 우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들렸다. 그 때 한참 좋아했던 자주색 잔 꽃무늬의 원피스는 학원에 도착해 있을 때 이미 비에 젖어 축축해져 있었다. 그 날은 날씨 탓인지 원피스 탓인지 마음이 어딘가 일그러진 것처럼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이 났었다. 정말 피아노를 치기 싫었다. 정해진 횡수를 채워야 한다는 것도 지겹고 짜증이 났다. 어느 때와 같이 작고 습막히는 개인 연습방에 들어가 노란색 표지의 체르니 연습곡 교재를 피아노보판대 위에 펼쳐 놓았다. 축 처지는 손가락을 피아노 건반위에 올려놓고 보니, 하얗게 빛나는 건반위의 손가락이 유난히 노랗게 보였다. 그날따라 노란 손가락들이 노란 책속의 음표들을 건반위에 옮기는 것이 정말 지루한 일처럼 느껴졌다. 보통은 여덟 번 치고 열 번 빗살무늬를 쳤지만, 그날은 다섯 번 연습하고 대답하게도 빗살무늬를 열 번 쳤다. 그렇게 곡 위에 눈속임을 하고 나와 검은색 스타킹에 담갈색 스커트 차림의 단발머리 여선생이 앉아있는 그랜드 피아노로 향했다. 남 앞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에 얼굴이 굳어졌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벌써 다했어?”

그녀는 그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피아노 건반 위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울리는 파동이 익숙하지 않았다. 한음 한음씩 더 울릴 때마다 직사각형의 하얀 건반들은 나의 불안한 마음과는 아무 관련 없다는 듯이 냉정하도록 가지런해 보였다.

“아까보다 못 치잖아. 제대로 연습한 거 맞아?”

그녀의 목소리가 나의 작은 몸을 관통하는 듯 했다. 나의 손가락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뭐야? 어쩔지 방에서 일찍 나오더니, 열 번 쳤어, 안쳤어?”

갑자기 심장이 가빠지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더 불안해졌다.

“대답해봐, 이나혜” 그녀의 물음에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창백해진 두 손을 건반위에서 허벅다리 사이로 넣었다.

“열 번 안했지? 그럼 너 이거 가짜로 표시 한거니?”

그녀의 이어지는 추궁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겁을 먹어 입을 열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나혜, 너 이러는 거 거짓말 한 거랑 똑같아, 알아? 선생님을 속인 거라고!”

그녀의 화난 목소리가 귀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두려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정말 웃기는 애네! 왜 다치지도 않고 표시를 하니?”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고,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새로운 종류의 공포감이 목구멍에서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울음을 억눌렀다.

“아! 대답을 하란 말이야, 왜 말을 못해?”

그녀는 한 손으로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오아앙”

갑자기 한 피아노 연습 방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모든 관심이 한 순간에 그곳으로 쏠렸다. 나를 질책하던 그 선생님도 우는 소리가 나는 방으로 향했다. 다른 방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던 다른 여자 선생님도 소리를 들었는지 나와서 두리번거렸다. 나는 피아노 의자 위에 앉은 채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 세상에...”

선생님들은 울음소리가 났던 방문을 열더니 그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경악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방 앞에 모인 아이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아아앙! 아파”

방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는 학원에 온지 얼마 안 된 나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소영이라는 여자아이였다.

“누가 이랬어? 한기동 나야?”

나를 혼내던 단발머리 여선생님은 아까보다 더 크고 높은 톤으로 옆에 앉아 있던 남자아이에게 물었다. 가끔씩 방 하나에 두 명이 들어가 같이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아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함께 있던 여자아이를 울린 것 같아 보였다. 씩씩거리던 남자아이는 모두의 앞에서 주먹을 쥐고 꾀꾀하게 서있었다. 매섭게 뜯은 여자아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괜찮니, 소영아?”

선생님들은 소영이의 빨개진 손목을 보고 놀라 물었다.

소영이의 두 손목은 붉게 부풀어 올라있었고, 곧 심하게 멍이 들 것 같아 보였다.

선생님들이 상황을 살피는 동안 소영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애의 손목은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한기동, 어서 말 못해?”

생머리의 여선생님이 소영이를 달래는 동안, 단발머리 선생님은 한기동이라는 아이에게 계속 추궁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너 진짜 혼나볼래? 선생님 말이 안 들려?”

선생님은 아까 나를 혼내던 때보다 훨씬 화가 나있었다. 그럴수록 그 아이는 주먹을 더욱 단단히 쥐 뿐이었다. 게다가 그의 모습은 그들 중 누구보다 분노에 차있어 보였다.

“아앙! 아파요, 선생님, 아파요”

소영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일단 선생님들은 그 애를 데리고 방으로 나왔다.

“어쩌지? 병원에 데려 가야하나?”

“그래요, 우선은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세요. 학원을 비울 수는 없으니깐 저는 아이들 보고 있을게요.”

두 여선생님은 다급하게 말을 주고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나중에 학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 둘은 같이 연습을 하다가, 소영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는지 기동이 피아노를 치던 그녀의 손 위로 피아노 뚜껑을 있는 힘껏 던져버렸던 것이다. 연약한 아이의 두 손목은 부러질 듯 했고 그 통증은 굉장했을 것이다. 소영이는 그 이후로 피아노 학원에 나오지 않았고, 유치원에서도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근데 한기동 원래 애들 많이 때리고 다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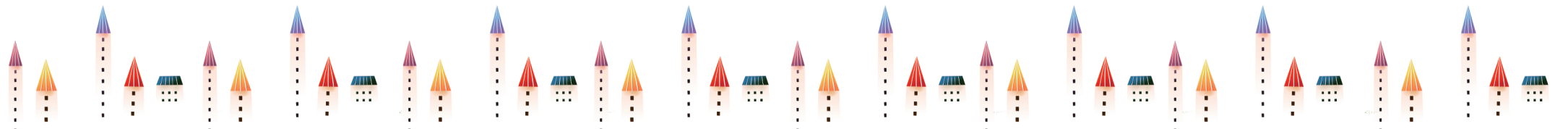
그때 그 일로 모여서 수다를 떠는 도중에 파란 티셔츠를 입은 한 여자애가 말했다.

“맞아. 나도 들었어. 나 한양유치원에 다니는데 말썽꾸러기야 개.”

옆에 있던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 유미가 말을 이어갔다.

“저번에는 우리 유치원에서 제일 힘이 세고 잘생긴 애가 있는데, 개 이름이 영철인데, 그 애도 주먹으로 막 때려서 영철이 울렸대.”

〈지면 관계 상 이하 생략합니다. 2등 수상작의 나머지 부분과 3등 수상작은 외대학보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곽창규 교수에게 듣는

# 우리나라 전자금융보안 이야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전자금융 서비스 사용 증가로 인해 해킹 사고도 늘고 있다. 최근 농협 텔레뱅킹 인출 사고로 인해 과연 은행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금융보안연구원은 이런 해킹사고 발생에 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 금융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IT강국이다. 과연 금융보안 면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을까. 우리학교 경제학과 곽창규 교수는 제 2대 금융보안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곽 교수에게 우리나라 금융보안에 대해 들어봤다.

## 우리나라 금융보안 더 발달해야

곽창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전자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금융 분야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 세계의 표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자금융의 성장보다 보안체계가 뒤떨어지다 보니 사건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성과 편리성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

그는 “금융보안은 상충관계에 있는 ‘안정성과 편리성’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성을 강화시키면 소비자는 복잡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은 떨어진다. 금융보안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뱅킹 이용이 전체 금융거래 중 80%를 넘는다.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곽 교수는 “금융 정보는 금전 취득이 가능한 계좌,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악성 해커들은 끊임없이 보이스 피싱, 대출 스캠 등에 이용하기 위해 금융거래 이용자를 주된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는 덧붙여 “변화하는 IT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정 기관을 사칭한 각종 스캠메일 발송, 위장 사이트로의 유도 등 금전 취득을 노리는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를 악용하는 보안위협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심리를 통해 교묘히 공략하기 때문에 100% 완벽 보안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 금융사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렇다면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그는 “사고는 항상 나기 마련”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사고가 누구에 의한 잘못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에서 소송을 걸면 환자들은 의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들에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송은 의사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사고는 의사의 잘못이 된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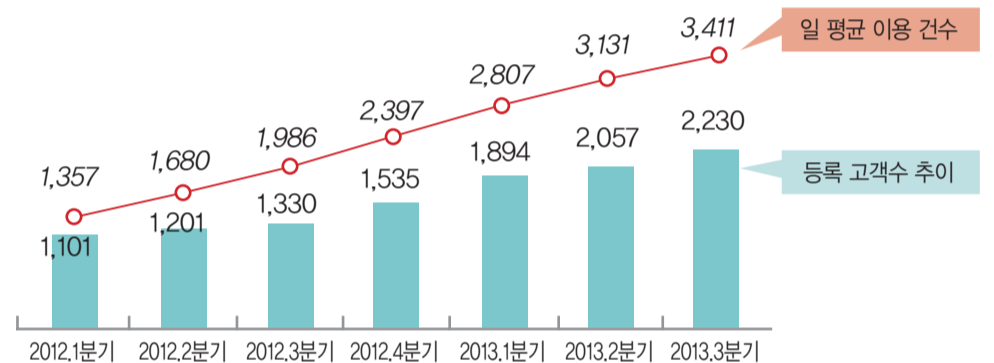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곽 교수는 “과거에는 사이버 상에서 해킹을 당하면 소비자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은행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해킹 등의 과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을 든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 대신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금융 사고가 나면 은행이 보증을 든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게 된다.

## 기업의 보안 분야 투자와 책임에 대해

이렇게 금융보안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기업의 투자는 아직 부족하다. 곽 교수는 “기업들은 전자금융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분야는 하나의 비용으로 생각해 투자를 꺼린다”며 “기업은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데, 상품의 경우는 수익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보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안을 소홀히 해 금융사고가 한 번 나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 고객정보유출 등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그는 “전자금융을 발전시키면 자동적으로 보안도 함께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보안 분야가 인기 있는 직업군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 부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가 있다”고 설명했다. CISO는 정보보호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 이용 현황



최고책임자로 기업에서 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책과 법률 대응까지 총괄 책임을 지는 최고 임원을 말한다. 기업이 임명한 CISO는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보안을 관리하고 정보보호업무 수행을 하게 된다.

## 보안관련 인력개발 시급하지만 지원은 부족해

금융보안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개발이 중요하다. 현재 모든 회사에서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공급은 충분치 않다.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IT인력 대비 평균 2.9%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타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곽 교수는 “금융보안 관련 지방자 및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고 IT 신기술 출현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법의 보안 위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IT보안 이슈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곽 교수는 “보안은 흔히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종종 비유된다. 공격이 진행돼야 막아가면서 대응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IT환경의 변화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예측하고, IT보안강화를 위한 인력개발 등의 노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교수는 금융부문이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과 기업들이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평소 보안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다면 전자금융의 안정성과 편리성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글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사진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 〈곽창규 교수님 저서 및 논문〉

- 스마트폰용 IT 시큐리티
- 지역 경제와 소셜 커머스가 만날 때
- 인적자본이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991)
- 선진경제를 위한 기본과제 (1997)
- 경제발전과 리더십 (1997)
- 공정거래법, 이렇게 바꾸자 (2004)
- 지방의 R&D 혁신시스템 구축방안(2008)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유다송 기자

### 학기의 끝, 이런 날도 오는구나



벌써 눈이 내리는 겨울, 기말고사가 코앞인 것을 보니 학기의 끝이 다가왔다. 이번해의 학보 발행도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목요일은 밤 새워 기사 쓰는 날, 금요일은 회의하고 조판하는 날, 목에 땀 습관들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

필자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학보사에 들어왔다. 24살, 3학년 2학기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열심히 해보겠다는 집념 하나로 기자 활동에 뛰어들게 됐다. 취업 막바지선에 다다른 나이에 나름대로 과감한 선택이었다. 특별한 꿈도 없이 나이만 먹는 내가 새내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싶어, 평소 관심 있던 기자라는 직업을 체험하며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원했던 기억이 난다. 학보사 내에서 기수제를 쓰다 보니 나보다 세 살이나 어린 1학년인 동기들에게 '다송아'라고 불리며, 잠시 진짜로 새내기가 된 듯한 설렘도 느꼈었다.

학기가 외대학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업무가 많아 생활이 달라지면서 '내가 이것 왜 하고 있지'라는 원초적인 생각에 접어들기도 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하는 원망은 늘어가고, 내게 고된 일만 주는 학보가 미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노고를 호소했던 일들도 있었다.

그런 학보와 보낸 첫 학기의 끝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아쉬움이다. 보람이란 일의 결과를 돌이켜봤을 때 열심히 했던 과정이 이유를 찾으며 느끼는 감정의 보상이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왜 뿌듯하지 않은 것인지, 일이 필자와 맞지 않는지를 수도 없이 의심했던 것 같다.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었는가. 마주하는 일들 가운데 부패를 고발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글로 적는 일은 내 흥미를 사,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됐다. 그러다 바쁜 학업과 업무에 쫓기며 어느새 목표는 '눈앞에 주어진 한 학기나 버티자'로 전도됐고, 필자는 매 호마다 할당량이나 대중 때워나가기 급급한 어중이떠중이가 돼있었다. 내가 혼심을 다하지 않아 얻어가는 것도 적었던 것이 뒤늦게 사필귀정이었음을 느낀다.

필자의 고정 코너였던 언(言)빌리버블 칼럼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때가 아니면 내가 글을 투고해 볼 기회가 어디 있겠나 싶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든 코너였다. 처음엔 독특한 문화 현상 등을 소개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을 담고 싶었는데 다소 비판적인 내용만이 가득한 칼럼으로 남게 돼버린 것 같다. 마감 날 글과 시간에 쫓겨가며 적기엔 나만의 생각을 엮어내기보다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비판적인 생각을 쓰는 편이 손쉬웠기 때문이다. 열의 가득한 초심이란 어디 갔는지, 나의 간사함을 새삼 돌이켜봤다.

매호 뒷담하는 기자마다 정말 뒷담처럼 좋지 않은 말만 적히는 것 같아 글을 적는데 미안한 마음이다. 혹시나 학보사 기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뒷걸음질 칠까 두렵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남아있을 이유에 대해 짐작해 달라.

외대학보는 우리학교 곳곳의 소식을 전해주는 언론사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큰 대가 없이 해가며 묵묵히 자신을 바치는 기자들과 외대학보를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어깨너머 듣는 교양

김현수 (미네르바 교양대학 · 사이버 범죄와 수사 강의)

### 사이버 범죄, 알아야 피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고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정보 교류도 언제든 가능하게 됐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이면에는 각종 부정확한 정보의 공유, 익명성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이버 범죄다.

여기서 사이버 범죄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총체를 의미하며 각각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그리고 불법콘텐츠 범죄 등으로 구분한다. 먼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시스템·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킹이다. 이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의 유출, 자료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 거부공격(DDoS),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이 있다. 둘째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

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공갈·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전자통신금융사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콘텐츠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전송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음란물을 게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피해자 수와 경제적 피해금액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법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해외에서 고의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범죄인 경우는 수사 및 처벌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다음을 숙지하도록 하자. 전자우편의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 우편이나 첨부파

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고 첨부파일 열람 및 저장 전에는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해야 한다.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날마다 메일을 체크해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삭제하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전자 우편 주소를 남길 때 신중하도록 한다. 온라인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니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하며 보안카드를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 다른 곳에 기재하면 안된다.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후, 이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융기관의 비밀번호 등은 기타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해야 하며 공공장소 PC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사이버범죄는 형사적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스스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시 정지

### 두근두근 개표 현장



▲ 지난 11월 27일 글로벌배우터 공학관 208호에서 25~27일 총 3일 동안 진행된 제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개표가 진행됐다. 일반 학우들도 참석해 개표현장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번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많은 학우의 노력과 관심으로 치러진 중대사였다. 그만큼 내년 총학생회장단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지나호를 말하다

백승이(서양어 · 노어 10) 서울배우터 독자위원

### 이번 학기 외대학보를 읽으며

마지막 독자 기고인 이번 글에는 지난 호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 외대학보를 읽으며 독자위원들이 건의해왔던 전체적인 의견을 신고자 한다.

먼저 우리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기사 구성이다. 1면의 학교 상징물 관련 기사는 설문조사 날짜와 조사방법 등을 기사 리드에서 언급을 해주고 기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열린공간의 십자말풀이 당첨자는 페이스 북이 아닌 지면에 실는 것이 더 흥미로웠을 것이다. 다음은 물음표의 무리한 사용이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 기사 표제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어조가 필요하다. 물음표 사용은 줄여줬으면 한다.

다음은 간결한 시각적 표현의 부재다. 기사 내용이 길고 복잡하다. 여러 사실을 나열하기 때문에 그렇다. 간단한 표를 사용하면 주목도와 전달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또한 5분 썸프가 음악을 소개하는 코너라는 것을 처음 읽는 독자는 모른다. 간단하게라도 소개하는 곡의 자켓사진과 제목, 가수 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유용한 코너가 부족하다. 어쩌면

외대학보의 가장 근본적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이 학보를 많이 읽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대학원의 커리큘럼이 필요할 것이고,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다독상·정독상 이벤트, 곧 결승을 앞둔 외대 토론회 등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학보가 미리 알려주지만 해도 저절로 외대학보에 손이 가지 않을까. 투표가 무산됐다. '요즘 학생들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한 지면만 내어주면 좋겠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정리, 간단한 인터뷰, 투표할 수 있는 장소와 날짜를 알려주는 기사는 왜 없는지 궁금하다.

열린공간의 글들은 정제돼 있으며 깔끔하고 내용이 유익하다. 그런 만큼 다른 면의 기사들의 내용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한 번 읽어 보면 지나칠 수 없는 오·탈자들과 어색한 단어 및 문장 구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 호 5면의 연계전공에 관련 보도는 지난 호와의 연장선상에 있어 좋았다. 독자들이 가질 수 있던 의문의 정보 전달 역할을 했다.

지나호를 말하다

김병용(통번역 · 이탈리아어 10) 글로벌배우터 독자위원

### 독자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2학기 독자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비평을 송고한다. 새삼스레 세월의 무서움을 되새기며 978호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1면에서는 우리학교 상징물 선정에 관한 기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상징물 선정 이유 및 과정을 알 수 있었지만 선정 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인지,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는 타 대학의 사례 등을 통한 시사점 또한 함께 있었다면 더욱 유익했을 것이다.

2면은 글로벌배우터의 총학생회후보 정경토론회의 기사였는데, 참관할 수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만 투표기간에 임박해 학보가 발행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많이 노출되지 않았을 것 같아 아쉽다. 또한 단순히 내용의 전달에 치중하지 않고, 요약 또는 소재목 등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층보도란에 맞는 기사 실는 치밀함도 중요하다.

3면에서는 학내의 여러 소식을 알 수 있었다. 이중전공, 부전공에 대한 학교의 졸속한 처리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취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5면의 연계전공에 대한 기획보도는 시의적절하다. 연계전공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방향 제시까지 이뤄졌다. 또한 이중전공 신청기간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참고가 됐으리라 생각한다.

7면의 빈 의자 서술방식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서두에 사례를 들며 의견을 전개하는 방식은 좋으나 사례의 단순 서술의 길이가 너무 길다. 사례는 핵심만 요약해서 제시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조건신문과 대비해서 이번 학기 중 아쉬운 부분이었다.

8면의 인터뷰는 매 호 재밌게 읽는 기사다. 학교 동문 이외에도 사회 명사를 인터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익한 인터뷰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문은 보는 재미와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대학 언론의 위기라고 불리는 요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보사 일원에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아울러 독자들도 학교와 학내 언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국·부장 고정칼럼

## 부끄러움을 가르칩시다

▲비정상회담으로 인기몰이를 한 에네스 카야가 미혼남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교제해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모 방송국 뉴스에 따르면 에네스 카야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만 7명이 넘는다. 평소 방송에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보수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며 '유생'으로 불리기도 하고,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던 그이기에 결혼 여부는 물론 이름과 국적까지 속여가며 여자들과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추후 대처다. 그는 인터뷰나 사과문을 통해 불륜 여부나 목을 졸랐다 등의 증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괴롭다, 슬프다 등 동정을 사려는 듯한 발언만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가 속인 여성들이 아니라 팬들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미안해하는 듯한 문장들은 그의 사과문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도 이른바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폭언 뿐만

아니라 성추행, 인사전횡 등 다른 문제들도 줄줄이 팔려왔다. 이에 대한 박현정 대표의 대응도 흥미롭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정명훈 예술감독이 배후에 있다, 직원들의 음해다, 직원들이 무능력했고 공사구분이 없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 뿐이었다며 사과 대신 반박으로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채웠다. 물론 사과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박현정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사기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교향악단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와 그녀의 발언들이 얼마나 적절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번 해 뻔뻔한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된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공인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스스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다

른 이유를 갖다붙이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마치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현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잘못을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는데 급급해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다. 혹은 잘못보다는 잘한 점을 내세워 덧셈뺄셈을 하려고도 한다. 우리 사회, 점점 뻔뻔해지고 있다.

▲이제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뻔뻔하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부끄러움의 미덕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안 될까. 그런 의미에서 외대학보도 부끄러워할 것이 참 많다. 작게는 오·탈자부터 기사 배치나 아이템 선정까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고쳐보려고 노력해야 할 시기가. 다음 학기 개강호까지 더욱 더 정진해 '외대학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신문을 만들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설

##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하자

겨울은 성큼 다가왔고 2014년 갑오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을 되돌아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 버린 것은 아닌지 허전할 때가 있다. 요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고 말한다. 물론 힘들지 않은 해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특히 세월호 사건, 유난히 많았던 재난 사고로 사람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과 각박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기 힘들다 보니 작은 베풀과 나눔도 실천하지 못한 채 그냥 한 해를 보내고 만다.

최근 월급 120만원을 받는 67세의 경비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기부 약정서를 낸 후 10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내년 연말까지 9000만원을 더 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매달 100만 원씩 모은다고 가정해도 1억 원을 모으려면 9년이 걸린다. 그 경비원의 1억 원은 부자들의 몇십 억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돈일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도 자기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가치 있는 기부를 한 이 경비원의 이야기는 추위지는 연말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또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따뜻함을 나누는 전시회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시를 볼 수 있으며 수익금은 불우 이웃을 위해 쓰인다고 한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추운 겨울이 올수록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것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다. 이런 이웃을 위해 작은 마음을 담은 나눔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찾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삶을 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날씨가 추워지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위의 이웃을 둘러보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4년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외대인이 되길 바란다.

## 대학, 공부보다는 마케팅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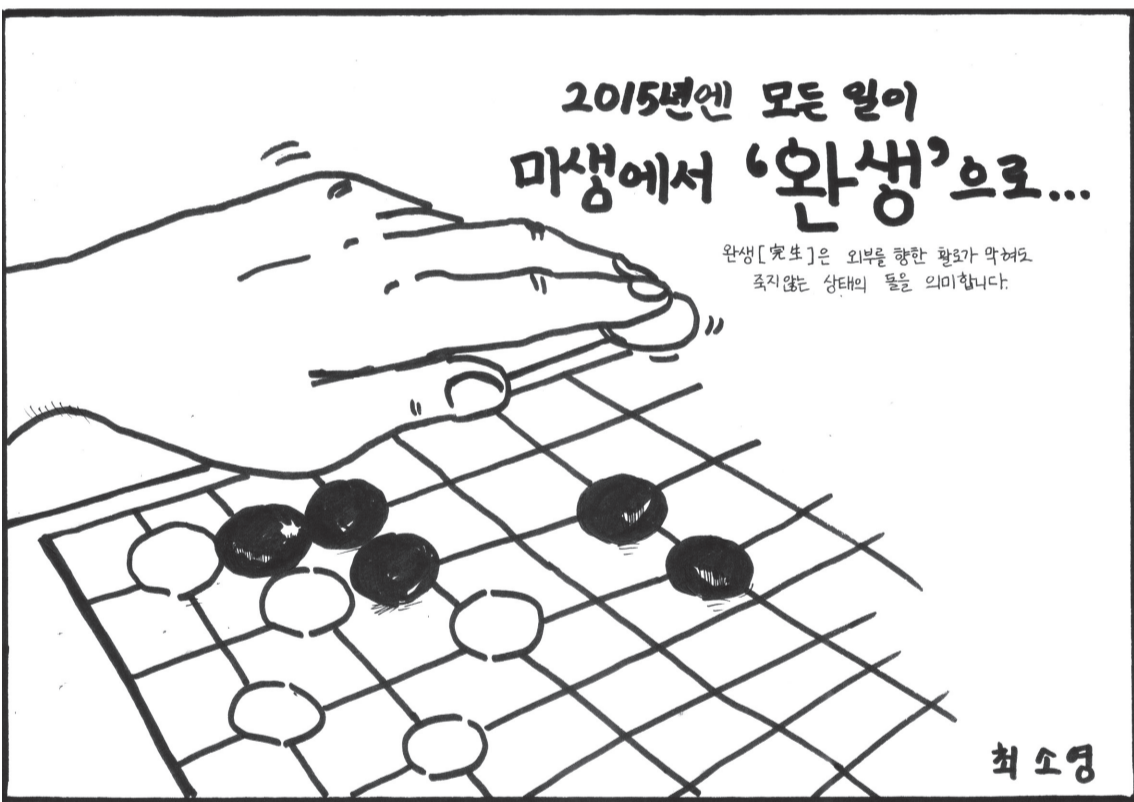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2015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신입생이 된다고 한다. 천재골퍼라고 불리는 그녀가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자, 뉴질랜드가 국적이고 미국에 살며 1년 내내 훈련과 LPGA 투어에 바쁜 그녀가 사실상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련해 쏟아진 고려대학교 측과 리디아 고의 인터뷰를 보면 현실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대학도 이런 리디아 고의 상황을 배려해 그녀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온라인 강의 등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리디아 고의 아버지인 고길홍씨는 한국 선수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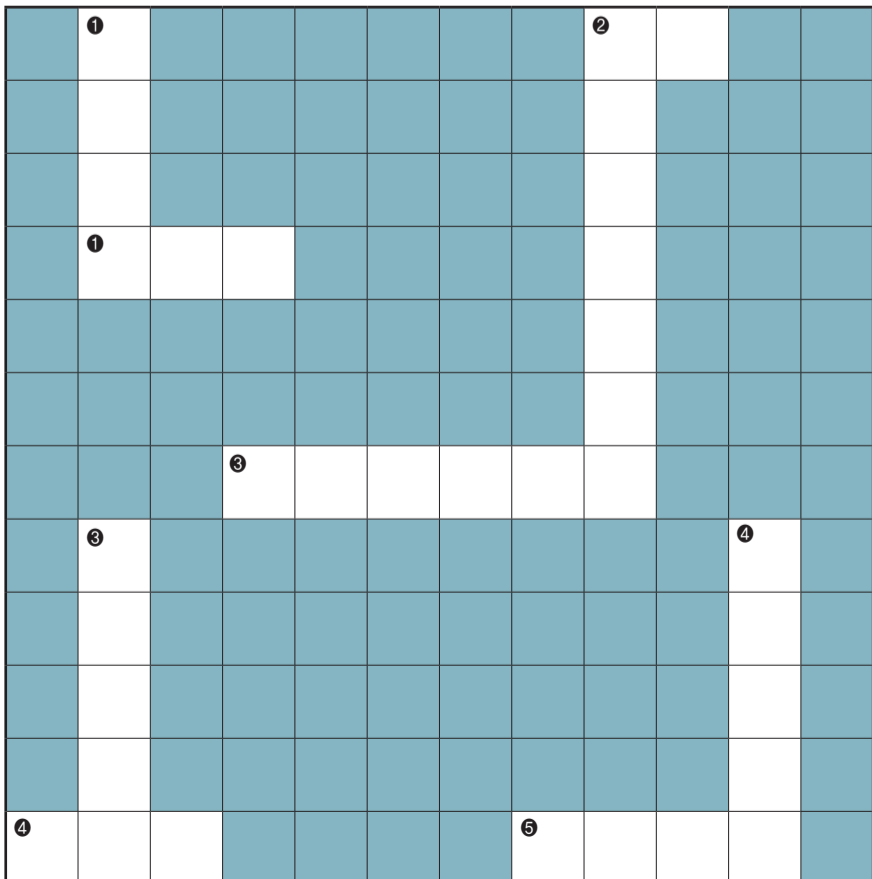
요즘은 대학도 마케팅을 하는 시대라고들 한다. 슈퍼스타를 동원해가며 조금이라도 더 이름값을 알리고 대학 홍보에 이용하려 애를 쓴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이 대학에 입학한 뒤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도 졸업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됐다. 졸업 유예생이 점점 늘어나고, 4년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일반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

대학의 본질은 교육에 있다. 애초에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학이 하나의 '스펙'처럼 여겨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비싼 돈을 내며 대학에 다니는 이유는 결국 공부에 있다.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고 공부하며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대학생들도 마땅히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음에도 입학한 리디아 고와, 이런 상황에도 유명하고 재능 있는 프로골퍼라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이런 상황을 용인해주기로 한 고려대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만 평



## 십자말풀이



**가로**

1. 금융보안은 000과 편리성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9면 참조)
2. '차세대 도시·농림융합 00사업단' 유치기관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 결과 우리학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면 참조)
3. 2015학년도 1학기부터 00000이 변경된다. (2면 참조)
4. 2015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로 당선된 선본은 000이다. (1면 참조)
5. 블랙스완 팀은 총장배인문학0000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면 참조)

**세로**

1. 전자금융의 발달에 따라 0000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9면 참조)
2. 개정된 총학생회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0000000이다. (2면 참조)
3. 이서빈 양은 2014 00000 선(善)에 당선됐다. (12면 참조)
4. 00000은 1980년대 초반 남성 위주의 민주와 운동에서 여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에 더해 다양한 약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생긴 학생자치단체이다. (8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북 계정 친구추가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해 당첨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이수진 010-4257-9732, 87curious@hufs.ac.kr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이수진  
부장 최소영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www.oedaehagbo.com  
facebook /newhufspress

# 나는 미스코리아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2014 미스코리아 선  
이서빈(동양어·태국어 12)

‘우아한 드레스’, ‘짙은 화장’, ‘반짝이는 왕관’, ‘몸매가 드러나는 수영복’. 이는 미스코리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다. 방송에 비춰진 모습이 아닌, 왕관과 드레스를 벗고 짙은 화장을 지운 대학생의 그녀를 만났다. 그만큼 솔직담백하게 미스코리아의 삶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번 해 3월 미스코리아 경기 지역 예선을 치르고 6월 경기 지역 본선에서 미에 당선됐다. 당선 후 23박 24일 간의 합숙소 생활을 마치고 7월 미스코리아 전국 본선에서 미스코리아 선이 됐다.



## Q. 미스코리아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미스코리아를 준비하거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계기란 것은 없다. 단지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미스코리아에 나오게 됐다.

## Q. 미스코리아에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항공과 학생들처럼 교수가 추천을 해준 것도 아니고 미용실을 통해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딱히 없었다. 또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 경기도 예선 후 본선은 세월호 사고로 두 번 미뤄져 6월에 치르게 됐다. 바로 그 다음 주가 기말고사여서 금요일까지 시험을 보고 토요일에 과제 제출을 마친 후 일요일에 합숙소에 들어갔다. 이러한 이유로 거창한 준비는 못하고 다이어트와 마음의 준비 정도만 했다.

## Q. 전국 본선 대회 전 23박 24일간의 합숙소 생활을 한다고 들었다. 합숙소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본선을 대비해 1시간 40~50분 정도 시간을 재면서 머리와 화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한다. 훈련이 끝나면 점심을 먹고 그 이후 8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군무를 쳤다. 미스코리아 대회는 대부분 협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협찬사를 방문해 제품 홍보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합숙소가 경상북도 산청군에 있어서 근처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며 체험활동과 봉사활동도 했다.

## Q. 합숙소에 아무래도 여자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기 싸움이 심할 것 같다. 실제로는 어떤가?

대학교에도 ‘짱수 학번이 이쁘다’, ‘홀수 학번이 잘생겼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미스코리아에도 ‘홀수 기수가 기가 세다’는 얘기가 있다. 이번 기수는 58기로 짱수 기수라 그런지 동기끼리 서로 싸운 적은 없다. 그러나 여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기는 한다.

## Q. 최근에는 일본에서 열린 ‘미스인터내셔널 2014’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대회기간동안 어떻게 지냈나?

미스코리아처럼 미스인터내셔널도 합숙을 진행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합숙기간을 가졌고 다음날 11일에 본 대회를 진행했다. 미스인터내셔널 대회에는 스태프를 데려갈 수 없어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재밌었다.

이 대회는 미스코리아보다 규모가 큰 협찬이 많아 보여주기 식의 행사들이 많았다. 그래서 드레스를 자주 입었다.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뽐내는 ‘전통의상 퍼레이드’도 진행됐으며 일본 전통을 체험하는 행사도 있었다. 일본 전통 꽃꽂이 행사, 차를 마시는 예절과 의식을 배우는 행사, 전통 배를 타보는 행사 등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포럼 형식으로 주제를 던져주고 그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질문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를 하는데 한 사람당 대략 1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내가 백만장자가 된다면?’, ‘내가 십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등의 질문이 있었는데 모든 질문에 ‘당신이 미스인터내셔널이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의미가 내포됐던 것 같다.

그리고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애초에 수상보다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기회이니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대회에 참가했다. 친구들은 자기나라 인사말을 알려주기도 하며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친구들과는 한국 드라마나 k-pop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아직도 그때 사귀 친구들과 연락을 한다.

## Q. 국제대회에서 직접 느껴본 한국만의 독창적인 미(美)가 있나?

우리나라 전통의상이 한국만의 미를 잘 드러냈다. 이번 ‘전통의상 퍼레이드’에서 가채를 썼는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가채는 머리에 머리카락을 붙이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 생소한 외국인들이 신기해했던 것 같다. 하지만 가채는 벗을 수 없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쓰고 있느라 너무 힘들었다.

또한 한복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복은 속치마를 3~4개정도 입기 때문에 의상이 풍성한 느낌을 준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 드레스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한복에 흥미를 가졌다.

그녀는 학생 때 미스코리아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미스코리아는 ‘호수 위에 백조’라고 생각한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미스코리아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 Q. 미스코리아 대회가 여성의 성 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이제까지 방송사에서 중계해주는 본선 대회만 보고 미스코리아를 판단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미스코리아의 일부분만 사람들에게 노출돼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사실 ‘미(美)’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미스코리아 선발 시 외적인 미뿐만 아니라 내적인 미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스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많은 노력을 한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미스코리아의 합숙 생활을 취재해 미스코리아의 이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덕분에 우리가 평소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미스코리아가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 Q. ‘미스코리아’와 ‘미스인터내셔널 2014’를 겪으며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외면적으로는 살이 정말 많이 빠졌다. 합숙을 하다보면 힘들어서 살이 빠진다. 밥은 정말 잘 나오지만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이번 해 초 예선 때 몸무게에서 7~8kg정도 빠진 것 같다. 내면적으로는 한층 더 성장한 느낌이 든다. 두 번의 합숙을 경험한 후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 대화할 때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주로 공통적인 관심사를 지닌 주변 사람들과 교류했지만 미스코리아가 된 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깨달으며 배운 점이 많았다.

## Q.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

미스코리아가 되기 전에는 금융 공기업에 관심이 많았다.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경제학회에 참여했다. 태국어를 전공하고 있어서 한국과 태국을 넘나들며 일하는 경제 관련 직종을 갖고 싶었지만 막상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는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미스코리아라는 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진 것 같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태국 빈민가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고 현재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어린이들은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가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덧붙여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 ‘미스인터내셔널 2014’ 대회 당시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서빈 양이다. 미스코리아 전국 본선에서는 1명의 진, 2명의 선, 4명의 미로 총 7명의 수상자가 정해진다. 진에게는 ‘미스유니버설’ 참가 자격이, 2등 선(7명 중 2등)에게는 ‘미스 인터내셔널’ 참가 자격이, 3등 선(7명 중 3등)에게는 ‘미스어스’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